

# ☆ 시조문학 총정리

만생 처음 보는 시조나, 또 설령 자주보는 시조라 하더라도  
이것들도 시조문학의 하위 개념이다....

시조문학은 대상에 대한 시적화자의 느낌과 태도를 읊은 글이다.  
정독하지 마라... !! 시간낭비다.

시간날 때... 점심먹고 저녁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대상 찾고, 정서와 태도찾고... 그러면 모두 끝난다...

그런 짜투리 시간에 읽어주기 바란다.

너희가 정리하려고 하면 몇 달 걸리는 자료다...

잘 이용하고 늘 활용해라..... 시간내서 공부할 자료는 아니다...

수능 국어 5등급도 4개월이면 1등급 된다...

선배들을 봤잖니? ... 너희도 할 수 있어... !!

○ 1 戀 情 歌 ○

(1-1) 귀쫂리 저 귀쫂리

지은이 미상

귀쫂리 저 귀쫂리 어엿부터 저 귀쫂리  
 여인 귀쫂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  
 節(절절)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인  
 즘을 슬뜨리도 석오노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  
 에 내 뜻 알리는 너쨌인가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우러 네어 : 계속해서 울어  
 사창(紗窓) : 비단으로 장막을 친 방. 여자의 거처. 규방(閨房)  
 여인 잠 : 살풋 든 잠  
 슬뜨리도 : 알뜰히도. 여기서는 잘도  
 무인동방(無人洞房) : 임이 없는 외로운 여인의 방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  
 는 너쨌인가 흐노라. : 두어라,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  
 하는 나의 심정을 알아 주는 유일한 것이다. 귀뚜라미와 시적 자아가 물  
 아일체, 동병상련의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 풀이]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  
 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 열은 잠을 잘도 깨  
 우는구나.  
 두어라, 제가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하는 나의 뜻을 아는 이는  
 저 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연모가(戀慕歌)  
 표현 - 의인법, 반복법, 감정이입  
 제재 - 귀뚜라미  
 주제 - 가을 밤 임 그리는 외로운 여성(女心)

▶ 작품 해설

평민층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설시조는 임과 이별한 여  
 인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의탁해서 노래하고 있다. 긴소리, 짧은소리로  
 절절이 슬프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에 대한 청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해,  
 깊은 밤 독수 공방하며 짙은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여인 즘을 슬뜨리도 석오노고야.' 라는 감정  
 이입에 의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고 전  
 전 반측(轉轉反側)하는 화자의 심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이 가슴 저미게 스며 있는 이  
 노래는 사설시조에서는 드물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노래이다. 임을 향  
 한 애절한 그리움의 심경을 귀뚜라미에 의탁하여 읊은 이 작품은 감정이  
 입의 수법을 사용하여 동병상련을 느끼게 한다.

(1-2)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지은이 미상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외헤 매게 쫂친 가토리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일천 석) 시른 빅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뚫대도 것고 치도 췌지  
 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  
 은 千里萬里(천리 만리) 나은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췌는디,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 흐리오.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바히들 : 바윗돌. '바히' 만 따로 '전혀' 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  
 람도 있음  
 쫂친 : 쫓긴  
 안 : 속 마음  
 농총 : 용총(龍鬚). 뚫대에 맨 굵은 줄  
 치 : 키. 배의 뒤에 달려서 방향을 조절하는 기구  
 나은디 : 넣는데. 더 되는데  
 거머어득 : 겹고 어득한 곳  
 가치노을 : 까치놀. 사나운 물결. 사나운 파도 위의 떠도는 흰 거품  
 도사공(都沙工) : 사공의 우두머리  
 ㄱ을 흐리오 : 견주리오. 비교하겠는가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외헤 매게 쫂친 가토리 안과, : 너무나 바위  
 라도 있으면 숨기라도 하련만 그런 것조차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  
 기는 까투리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임을 잃은 자신의 마음이 그  
 려게 절박하다는 말이다.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 흐리오 : 까투리나 도사공의  
 심정보다도 나의 심정이 더욱 안타깝고 참담함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 풀이]  
 나모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 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일고, 닷도 일고, 용  
 총(뚫대의 줄)도 끊어지고, 뚫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  
 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잿아진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면  
 은 겹어 어득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석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힌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수심가. 이별가  
 어조 - 절망적이고 절박한 여인의 목소리  
 표현 - 상징적 암유, 열거, 비교, 과장, 점층법  
 제재 - 임과의 이별  
 주제 - 임을 여인 절망적인 슬픔

▶ 작품 해설

이별 당한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기발하다. 시련이 겹  
 치는 사회적 상황을 거듭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시련의 극치이다.  
 해학적 표현 속에 비장감(悲壯感)이 감돈다.

‘삼한(三恨)’ 혹은 ‘삼안[三內]’ 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안’ 이라는 말로 마음을 나타내면서, 세 가지 절박하기 그지없는 마음은 어디나 비할 데도 없다고 하였다. 맨 마지막으로 잊그제 임을 여원 자기 마음을 말하기 다른 두 가지를 가져 와 놓고서, 비할 데 없다는 것으로 해서 그 둘이 각기 독자적인 의미를 갖도록 개방하여 버렸으니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치고 이만큼 기발한 예를 다시 찾기 어렵다.

매에 쫓긴 까투리는 ‘도끼전’ 에서 용궁을 탈출한 다음에 다시 시련에 부딪친 토끼를 연상하게 한다. 대천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고, 날씨는 험악해지는 판국에 수석까지 만난 도사공의 경우는 시련의 극치로 느껴질 만큼 거듭 묘사되어 있다.

(1-3) 님이 오마 햅거늘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햅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  
드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山(산) 바라보니 거머핍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  
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공비님비 님  
비공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디 므른디 굴희지 말고 위령  
총창 건너가셔 情(정)잇말 햅려 햅고 것눈을 흘긔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굴가벽긴 주추리 삼대 술  
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망정 흥혀 낮이런들 늣 우일 번햅괘라.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일 : 일찍
- 지방(地方) : 문지방
- 이수(以手)로 : 손으로
- 가액(加額)하고 : 이마를 가리고
- 거머핍들 : 검은 빛과 흰 빛이 뒤섞인 모양
- 공비님비 : 옆치락뒤치락. 연거푸 계속하여
- 천방지방 : 허둥거리는 모습
- 존 디 : 진 곳
- 위령총창 : 급히 달리는 말소리
- 정(情)잇말 : 정이 든 말
- 상년(上年) : 작년
- 삼대 : 삼의 줄기. 마경(麻莖)
- 모쳐라 : 그만 두어라
- 우일 : 웃길

[전문 풀이]

님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논가 하여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머핍듯한 것이 셔 있기에  
저것이 틀림없는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  
고, 옆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긔 보니, 작년 7월 3일  
날 껌질을 벗긴 주추리 삼대(씨를 받는다고 그냥 밭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가 알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실시조
- 성격 - 해석적, 과장적
- 주제 -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 작품 해설

그리워하는 임을 여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해석적으로 잘 표현한 시조이다. 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어 하는 행동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임을 그리는 초조한 마음에서 허둥대던 작자는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 겸연쩍어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이 그려져 있으며, 중장에서는 이 초조한 마음이 행동으로 구상화되어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겸연쩍어하는 마음을 종장에 그려, 전체적으로 임을 애타게 그리는 여성의 섬세하고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1-4) 동지사들 기나진 밤을

황진이(黃眞伊)

冬至(동지)스들 기나진 밤을 한 허리를 베히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릭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한 허리 : 허리의 한가운데
- 베히 내어 : 베어 내어
- 춘풍(春風) 니불 :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 서리서리 : 노끈이나 새끼 등을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모양
- 어른님 : 얼은 임. 정분(情分)을 맺은 임
- 밤이여든 : 밤이거든. 밤이면
- 冬至(동지)스들 기나진 밤을 한 허리를 베히 내어, : 동짓달 기나진 밤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동짓달 긴 밤을 외로이 지내는 여성(女心)이 잘 나타나 있다.
-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외롭게 혼자 지낼 때 남는 시간을 임과 함께 지내는 즐거운 시간에 보태어 쓰고 싶다는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전문 풀이]

동짓달 기나진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도록 이으리라.

[핵심 정리]

- 지은이 - 황진이(黃眞伊, 연대 미상) 본명은 진(眞). 기명(妓名)은 명월(明月). 조선 중종 때 송도의 명기(名妓)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서음률(詩書音律)에 능하였다. 그의 시는 여성적 정서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시 4수와 시조 6수가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감상적, 낭만적, 연정가
- 표현 - 은유법, 의태법
- 제재 - 동짓달 밤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 작품 해설

상층 문학(上層文學)의 갈래로 등장했던 시조가 연정을 읊은 기녀(妓女)들에 의해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고 주제도 확장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간절한 기다림을 비유와 의태적 심상에 의해 나타낸, 시적 호소력이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의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임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사랑을 절실히 환기시켰다는 것이다. 시간이나 애정의 정서를 참신한 표현 기법으로 형상화하여 여성 특유의 시 세계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1-5) 마음이 어린 후이니

서경덕(徐敬德)

마음이 어린 後(후)이니 허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향여 권가 허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어린 : 어리석은  
만중운산(萬重雲山) : 구름이 겹겹이 낀 산. 험하고 깊은 산. 지은  
이가 거처한 현실적 배경

어너 : 어느  
오리마는 : 오겠는가마는  
권가 : 그이인가. 임인가

마음이 어린 後(후)이니 허는 일이 다 어리다. : 이 초장은 겸손을 나타낸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종장의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너 님 오리마는 : 임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 속에서도 그리움의 정서가 깃들여 있다.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향여 권가 허노라. :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임이 아닌가 한다. 도학자 이전의,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을 도치시켜 표현함으로써 운율을 조성하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냈다.

[전문 풀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만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어나 임인가 하고 생각한다.

[핵심 정리]

지은이 - 서경덕(徐敬德, 1489-1546) 호는 화담(花潭). 조선의 성리학자. 황진이, 박연 폭포와 더불어 송도 삼절(松都三絶)이라 일컫는다. <화담집(花潭集)>이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감상적, 낭만적  
표현 - 도치법, 과장법  
재제 - 기다림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 작품 해설

지은이가 황진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라고 한다. 스스로 마음이 어리석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어리석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그리움의 정도가 강렬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만중 운산(萬重雲山)’은 그리운 사람과 지은이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지은이가 거쳐하는 곳의 공간적 특징을 압

축해 보여 준다. 종장은 ‘지는 님’과 ‘부는 바람’과 같은 자연의 조그마한 변동에서도 인생살이의 기미를 깨닫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여 준다. 시조의 전형적인 틀을 지키면서 전통적인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이 작품은 맑은 시냇물과 같이 열은 듯 깊은 인생의 지혜와 은은히 내비치는 낭만성이 잘 조화되어 있다.

(1-6) 바람도 쉬어 넘는 고기

지은이 미상

바람도 쉬어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기.  
山(산)진이 水(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랏빛도 다  
쉬어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허면 나는 아니 허 번도 쉬어 넘어  
가리라.

<악학 습령(樂學拾零)>

[시어, 시구 풀이]

산진(山眞) : 산에서 자란 매  
수진(水眞) : 집에서 길들인 매. 水는 手임  
해동청(海東靑) : 송골매  
보랏빛 : 새끼매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보랏’은 몽고어로  
가을이란 뜻임  
그 너머 님이 왔다 허면 나는 아니 허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 사  
랑의 정열과 의지를 나타냄

[전문 풀이]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송골매 보라매(매의 종류들) 같은 매들도 도중에 쉬  
어야 넘을 만큼 높은 장성령 고개.  
그 높은 고개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숨에 넘어가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실시조  
성격 - 연정가(戀情歌). 연모가(戀慕歌)  
표현 - 과장법. 열거법  
주제 - 애타게 임을 기다림

▶ 작품 해설

강렬한 사랑을 노래한 시로서, 임을 그리는 마음이 가식 없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에 모든 매들까지도 다 쉬어 넘는 그 고개 너머 임이 와 있다면, 나는 단숨에 넘겠다는 그 정열은 사랑의 강렬함을 통쾌하게 보이고 있다.

이처럼 평시조에 비해 발랄하고 동적(動的)인 느낌을 주는 이 노래는 바람, 구름, 날짐승까지도 쉬어 넘어야 할 만큼 험준한 고개라 할지라도 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숨에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그리움에 대한 진실하고 솔직한 표출뿐 아니라,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1-7)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김수장(金壽長)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鐘樓(종루) 저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유

자) 스고 石榴(석류) 솟다 아츰츰 이저고 五花糖(오화당)을 니저발여 고노  
水杵(수박)에 술 쪼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해동가요>

[시어, 시구 풀이]  
쓸 것 : 돈이나 물건값이 될 만한 것  
종루(鐘樓) : 종을 달아 두는 누각  
저지 : 시장에  
달리 : 다리. 여자들이 머리 술이 많아 보이기 위해 덧널었던 뜰 머리.  
리. 여기서는 그것을 만들 때 쓰이던 머리카락  
이저고 : 잊어버렸구나  
술 : 손가락  
鐘樓(종루) 저지 달리 파라 : 병든 남편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머리카락을 파는 여인의 애뜻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전문 풀이]  
서방님 병들어 두고 먹일 것이 없어  
종루 시장에 다리(여자들이 머리 술이 많아 보이기 위해 덧널었던 뜰 머리, 여기서는 그것을 만들 때 쓰이는 머리카락)를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를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색사탕을 잊었구나.  
수박에 손가락 꽃아 놓고 한숨 지어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수장(金壽長, 1690-?) 호는 노가재(老歌齋). 숙종 때 병조(兵曹) 서리(書吏)를 지냈다. 시조와 노래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김천택과 더불어 당대 쌍벽을 이룬 가인으로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였다. 종래의 평시조와는 달리 민중들의 생활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려 내었고, 치밀한 상상력으로 폭넓은 역량을 작품에 담고 있다. 작품으로는 사실적인 서경시를 읊은 것이 많으며, <해동가요>에 117수의 시조가 전한다.  
갈래 - 사실시조  
성격 - 사랑가, 애정가  
표현 - 열거법  
제재 - 화재 재료  
주제 - 남편에 대한 애뜻한 사랑

▶ 작품 해설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을 관찰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병든 남편에게 화채를 만들어 주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재료를 샀는데, 돌아와서 보니 오화당을 빼뜨렸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관찰을 통해 시정의 범상한 인물들에 대한 작자의 정겨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아츰츰' 하는 감탄사를 적절히 구사하여 여인의 당황하는 모습과 애뜻한 마음씨를 해학적인 필치로 그린 점도 묘미가 있다.

(1-8) 어저 내 일이야

황진이(黃眞伊)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뜯여

보늬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내일이야 : 내가 한 일이며  
흐더면 : 했더라면  
구뜯여 : 구태여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뜯여 : '제 구뜯여' 는 '임이 구태여' 나, '내가 구태여' 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 책임을 굳이 따져 무엇이겠느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전문 풀이]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놓고는 이제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황진이(黃眞伊, 연대 미상) 본명은 진(眞). 기명(妓名)은 명월(明月). 조선 중종 때 송도의 명기(名妓)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서음률(詩書音律)에 능하였다. 그의 시는 여성적 정서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시 4수와 시조 6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편향. 연정가. 이별가  
표현 - 도치법. 영탄법  
제재 -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  
주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작품 해설

임을 떠나 보낸 후의 회한(悔恨)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애뜻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정결하게 표현하였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약한 서정적 자아의 마음이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1-9) 어이 못 오던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무슌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 城(성) 안에 담 쪼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櫃(궤)를 쪼고 그 안에 너를 必字形(필자형)으로 結縛(결박)하여 너코 雙排目(쌍배목) 외걸쇠 金(금)거북 자물쇠로 슈기슈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흐 해도 열두 돌이오 흐 들 설흔 날의 날 와 볼 흘니 업스랴.

<병와가곡집>

[시어, 시구 풀이]  
무쇠 城(성) : 무쇠로 된 성(城)  
두지 : 뒤주  
필자형(必字形)으로 結縛(결박)하여 :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오랏줄로 꽂꽂 묶어

쌍배목(雙排目) : 겹으로 된 문고리를 걸어 두는 장식  
외걸쇠 : 하나로 된 걸쇠. '걸쇠' 는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 자 모양으로 생긴 쇠  
슈기슈기 : 꼭꼭

[전문 풀이]

어찌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껌을 짜고, 그 안에 너를 오락 줄로 꿰어 놓아 놓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꼭꼭 잠가 두었느냐? 너 어째서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한 해는 열두 달이요, 한 달도 서른 날인데, 나를 찾아올 하루의 여유가 없단 말인가.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연대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연모가(戀慕歌). 해학적. 과장적
- 표현 - 연쇄법
- 제재 - 임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작품 해설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원망조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장에서는 연쇄법을 통해서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묻고 있다. '너가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담을 두르고, 집을 짓고, 뒤주를 놓고, 껌을 짜고, 그 안에 너를 걸박하여 놓은 뒤 자물쇠를 채웠느냐? 왜 그리도 오지 못하느냐' 고 묻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리운 사람의 내방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종장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 일 중에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다. 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해학과 과장을 통해서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1-10) 뒤틀거 굴히 것거

홍랑(洪娘)

뒤틀거 굴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딤,  
자시는 窓(창)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뒤틀거 : 산버들. 순정(純情)의 상징
- 굴히 : 가리어. 골라
- 님의손딤 : 임에게
- 새넙곳 : 새 잎만
- 너기쇼셔 : 여기소서. 여기십시오

[전문 풀이]

산에 있는 버들가지 중 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 두고 살펴 주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면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겨 주십시오.

[핵심 정리]

지은이 - 홍랑(紅娘, 연대 미상) 조선 선조 때의 함경도 경성(鏡城) 기생. 시조 1수가 전한다. 삼당시인(三唐詩人) 최경창(崔慶昌)과 정이 깊었다고 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편향
- 표현 - 상징법, 도치법
- 제재 - 뒤틀거
- 주제 - 임에게 보내는 사랑

▶ 작품 해설

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시조이다. 초장(初章) 후반부에 도치법을 써서 산(山) 버들을 보내는 뜻이 강조되어 있다. 비에 젖은 촉촉한 가지에 파릇파릇 움터 나오는 새 잎. 시각적으로 청순 가련(淸純可憐)하고 섬세한 여인의 이미지가 풍긴다.

이 시조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 6년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이 북해 평사(北海評事)로 경성(鏡城)에 가 있을 때 친해진 홍랑이, 이듬해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영흥(永興)까지 배웅하고 함관령에 이르러 저문 날 내리는 비를 맞으며 이 노래와 버들가지를 함께 보냈다 한다.

(1-11)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무명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너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엿난고.  
석양(夕陽)에 짝 일흔 굴머기논 오락가락 흐노매.

[핵심 정리]

- 지은이- 무명
- 종류- 평시조, 강호 한정가
- 연대- 선조
- 출전- 진본 청구영언
- 주제- 전원의 한가로운 정경 및 적막감 제재- 연못의 봄 경치
- 어조-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는 목소리
- 특징 .서경 묘사가 두드러짐
- .상투적 표현
- .정경의 정층적 열거
- .구체적 대상을 통해 시적 자아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암시

[전문풀이]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들가지에는 물안개가 서리었는데,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매어 있는가? 해질 무렵에 짝 일흔 갈매기만 오락가락하는구나.

▶ 작품 해설

주로 서경(敘景)을 통해 서정(抒情)을 표출하고 있다. 초장은 특히 서경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이다. 이는 중, 종장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우리 선인들의 자연에 대한 시점은 첫째 자연에 의탁한 연군의 정, 다음으로 치사귀향(致仕歸鄉)하여 자연에 묻혀 사는 흥취를 잃은 것과 떨칠 수 없는 인사(人事)를 자연에 의탁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 노래는 셋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 빈배, 짝 일흔 갈매기' 등은 지은이의 외로움을 더해 주는 소재들이다.

(1-12) 靑草(靑草) 우거진 골에

임제

靑草(청초) 옥어지 곁에 죽는다 누엇는다.  
紅顏(홍안)을 어디 두고 白骨(백골)만 못쳤는다  
藎(잔) 줍고 勸(권)히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핵심 정리]  
종류 : 평시조  
성격 : 애도가  
제재 : 홍안, 백골, 무덤  
주제 : 황진이 죽음 애도(哀悼)  
출전 : <교주 해동가요>

[전문풀이]  
푸른 풀 우거진 골짜기에서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그 곱고 아름답던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 있던 말이나.  
술잔을 잡아 권해 줄 사람이 이제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작자가 평안도사(平安都事)로 부임하는 길에 명기 황진이  
의 무덤을 찾아 읊은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 일이 양반의 체통을 떨  
어뜨렸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용모가 단정하고 시문에 능하였던 황진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작  
자는 술병을 차고 무덤 앞에서 혼자 잔을 기울이며 인생의 허무를 되씹  
고 있다. 그 아름답고도 황홀한 얼굴의 모습도 간 데 없이 그 무상한 죽  
음 앞에 입을 다문 만인의 연인 황진이. 불러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니  
그녀의 세계를 사랑했던 작자의 애상적 감정은 쏟아져 흘렀을 것이다.

(1-13) 공산에 우난 접동

박효관

공산(空山)에 우는 접동 너는 어이 우지는다.  
너도 날과 갖치 무음 이별 호앗느냐  
아무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시어, 시구 풀이]  
어이 :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우지는다 : 우짖느냐.

[전문 풀이]  
공산에 우는 접동새 너는 어이 우짖느냐.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을 하였느냐.  
아무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핵심 정리]  
갈래 : 평시조  
제재 : 남과의 이별  
배경 : 조선 말기, 작자는 시조와 창(唱)에만 몰두하는 평민으로 그  
유명을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도 어떤 이별의 사연이 계기가 되어 이  
작품을 지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주제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

▶ 작품 해설  
초창의 '공산'은 시간적이나 배경으로 고요하고 적막한 때를 연출해  
주며, 작자의 심정을 응축시켜 놓은 상황이 된다. 한적하고 고독한 분위

기를 더해 주는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접동새'의 구슬픈 울음소리,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작자의 마음을 알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애처롭게  
운다. 그러나 아무리 호소하듯 슬프게 물어보아도, 이별한 임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작자의 체념이 종장에 나타나고 있다.

○ 2 戀君과 憂國 ○

(2-1) 녹초 청강산에

서익(徐益)

綠草(녹초) 晴江上(청강상)에 굴레 버는 풀이 되어  
새새로 말이 들어 北向(북향)하야 우는 뜻은  
夕陽(석양)이 재 넘어 감애 남자 끌어 우노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녹초(綠草) : 푸른 풀. 자연에 묻혀 있는 처지임을 뜻함  
굴레 : 마소의 고삐를 걸쳐 엮어 매는 줄. 여기서는 벼슬을 뜻함  
綠草(녹초) 晴江上(청강상)에 굴레 버는 풀이 되어 :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내려가 한가로운 신세가 된 것을 '굴레 벗은 말'로 비유하였  
다.  
夕陽(석양)이 재 넘어 감애 남자 끌어 우노라. : 임금님께서 돌아가  
셨다 하니 다시 볼 수 없는 임금님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다.

[전문 풀이]  
벼슬을 그만 두고 녹초 청강산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때로 고개를 들어 북쪽을 향해 우는 뜻은  
석양에 해 넘어갔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을 그  
리워하여 우는 것이다.

[핵심 정리]  
지은이 - 서익(徐益, 1542-1587) 조선 선조 때의 문신. 호는 만죽  
(萬竹). 별시에 급제하여 의주 목사가 되었다가 후에 은진의 갈산사(葛  
山寺)에 은거함. 시조 2수가 전하며 저서로 <만죽헌집(萬竹軒集)>이 있  
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유교적, 군신유의  
표현 - 은유법  
제재 - 임금(조선 중종)의 승하  
주제 - 임금 승하의 애도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  
다.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중종(中宗)이 승하했다는 소  
식을 듣고, 그리고 슬픈 심정을 읊은 시조이다.  
벼슬을 내 놓고 고향에 돌아와 한가로운 신세가 된 것을 '굴레 버  
는 말'로 비유하였다. 때때로 '북향'하며 울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해가 서산 너머로 저버려 슬프다는 뜻이다. 해가 서산 너머로 저버렸  
다는 것은 중종(中宗)의 승하를 의미한다.

(2-2)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김상헌(金尙憲)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다시 보자 漢江水(한강수)

야.  
 古國山川(고국 산천)을 쉰나고자 허라마는,  
 時節(시절)이 하 殊常(수상)하니 울동말동허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하 : 하도, 매우  
 時節(시절)이 하 殊常(수상)하니 울동말동허여라. : 시국이 하도 뒤  
 송송하니 다시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전문 풀이]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의 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돌아올 동 말 동허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조선 인조 때의 문신. 호는 청  
 음(淸陰). 병자호란 때 싸우기를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감. <야인담  
 록(野人談錄)> <청음집(淸陰集)> 등의 저서가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우국가, 비장감이 나타남  
 표현 - 영탄법  
 배경 - 병자호란의 주전론자(主戰論者)로 청나라에 끌려가는 치욕적  
 인 상황  
 제재 - 고국을 떠나가는 비장감(悲壯感)  
 주제 - 우국충절(憂國忠節)

▶ **작품 해설**  
 김상헌의 시조는 사대부 특유의 우국 충절(憂國忠節)의 노래이다.  
 이 작품의 비장함과 절실함은 그가 병자호란 때 주전론(主戰論)을 주장  
 하다 청나라에 끌려가야만 했던 치욕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병자호란 때, 예조 판서로서 척화 항전(斥和抗戰)을 주장하던 작자  
 가, 패전 후 청(淸)으로 끌려갈 때 지은 것이라 한다. 패전국의 전범자  
 (戰犯者)로 몰려 끌려가는 사람으로서, 하직의 노래로 구정(舊正)을 달  
 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 수 없다. 고국 산천에 대한 절절한 사랑,  
 오랑캐 땅에 잡혀가는 비장감, 귀국에 대한 불안 의식 등이 뒤섞인 작자  
 의 심경이 직설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2-3) 삼동에 뵈듯 넓고

조식(曹植)

三冬(삼동)에 뵈듯 넓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낀 벗누도 썬 적이 업건마는,  
 西山(서산)에 허지다 하니 눈물겨워 허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삼동(三冬) : 겨울의 석달. 한겨울  
 뵈듯 : 배로 지은 옷.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옷  
 암혈(巖穴) : 바위와 굴. 은둔자가 거처하는 곳  
 벗누 : 별 기운. 임금의 은총을 뜻함. '누' 는 대단치 않은 것. 작  
 은 것을 뜻하는 접미사  
 허 : 임금(중종)을 상징함  
 허지다 : 임금의 승하  
 三冬(삼동)에 뵈듯 넓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 세상을 등지고  
 사는지라, 한겨울에도 벼옷을 입고 은둔지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어

구름 낀 벗누도 썬 적이 업건마는, : 환한 햇별은 고사하고 구름에  
 가린 약한 별 기운이라도 썬 적이 없지마는. 즉 벼슬을 하지 않은 몸이  
 라 국록(國祿)을 먹거나 임금의 은총을 받은 적이 없지마는  
 西山(서산)에 허지다 하니 눈물겨워 허노라. : 임금(중종)께서 승하  
 하셨다 하니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구나.

[전문 풀이]  
 한겨울에 배로 만든 옷을 입고, 바위 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으며(벼  
 슬한 적이 없이 산중에 은거한 몸이며)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별도 썬 적이 없지만(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  
 도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  
 다.

[핵심 정리]  
 지은이 - 조식(曹植, 1501-1572) 호는 남명(南溟). 명종 때 학자로,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공부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산림처사  
 (山林處士)로 지남. '남명가(南溟歌)', '왕릉가(王弄歌)', '권선지  
 로가(勸善指路歌)' 등의 가사를 지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유교적, 군신유의(君臣有義)  
 표현 - 은유법  
 제재 - 임금(중종)의 승하  
 주제 - 임금(중종) 승하의 애도

▶ **작품 해설**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군신(君  
 臣) 간의 의(義)를 노래한 작품이다.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서 은거하는 몸이라 국록(國祿)을 먹거나  
 군은(君恩)을 입은 바 없지마는 임금이(중종) 승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읊은 시조이다.

(2-4) 正合邦(정합방)인지 흥음

지은이 미상

正合邦(정합방)인지 흥음 假合(가합)邦(방)인지, 흥.  
 一(일)陣(진) 狂風(광풍)에 집 쉰나갓네, 예.  
 익고딧고, 흥음, 이천만 동포야, 興(흥).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시어, 시구 풀이]  
 정합방(正合邦) :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이라 일컬어 왔던 경술  
 국치(庚戌國恥)를 이룸  
 가합(假合)방(邦)인지 : '정합방인지'의 대구적 표현으로 '합  
 방'에 대한 풍자적 표현  
 일(一)진(陣) 광풍(狂風)에 : 미친 듯이 부는 센 바람에. 당시 매국  
 적 정치 단체였던 일진회(一進會)가 설쳐 대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겠다  
 는 풍자  
 흥(興) : 감탄사로 모든 국민은 각성해서 일어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正合邦(정합방)인지 흥음 假合(가합)邦(방)인지, 흥. : 일제가 말하  
 는 소위 합방에 대한 개탄  
 一(일)陣(진) 狂風(광풍)에 집 쉰나갓네, 예. : 일진 광풍(一陣  
 狂風)의 시세(時勢)  
 익고딧고, 흥음, 이천만 동포야, 興(흥). : 이천만 동포의 각성 촉  
 구

[전문 풀이]

진짜 옳은 합방인지 가짜 합방인지 흥,  
한바탕 미친 듯이 회오리치는 바람과 같은 일진회의 작태에 나사가  
망하겠네, 예.  
애고 애고, 슬프다, 흐음, 이천만 동포야, 일어나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평시조(민요의 개작)  
성격 - 우국가(憂國歌). 풍자시(諷刺詩). 냉소적(冷笑的).  
희화적(戲畫的)  
표현 - 풍자. 중의법(重義法)  
제재 - 일진회의 작태와 망동(妄動)  
주제 - 친일파에 대한 각성 촉구. 일진회의 매국 책동(策動)  
풍자

▶ 작품 해설

경술국치(庚戌國恥)를 겪기 직전에 신문에 투고된 독자의 작품으로 당시의 세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중장의 ‘一(일)陣(진) 狂風(광풍)’ 이라고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은 당시 친일파 조직으로, 이른바 합방(合邦)에 앞장섰던 ‘일진회(一進會)’의 날뛰던 모습을 풍자한 것이며, 초장의 ‘흥’은 냉소적인 감탄사인 데 비하여, 중장의 ‘興(흥)’은 각성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 시조의 ‘흐음, 흥’ 등은 민요의 ‘흥타령’에서 가져 온 것으로, 민요의 개작임을 짐작케 한다.

(2-5) 간 밤의 우연 여흘

원호(元昊)

간 밤의 우연 여흘 슬피 우러 지내어다.  
이제야 싱각 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러 네리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여흘 : 여울.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거스리 : 거슬러  
네리라 : 가겠도다

[전문 풀이]

지난 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 슬프게도 울면서 흘러가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그 슬픈 여울물 소리는) 임이 울어 보내는 소리로  
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울면서 가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원호(元昊, 연대 미상) 호는 호는 무항(霧巷). 관란(觀瀾), 생육신의 한 사람.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으나,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벼슬을 버리고 은퇴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감상적, 연군가. 절의가  
표현 - 의인법, 영탄법, 중의법  
제재 - 여울 물소리  
주제 - 임금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

▶ 작품 해설

지은이가 단종이 유배된 강원도 영월까지 따라가 유배지 가까이에 석실(石室)을 지어 거처하면서 쓴 시조다. 여울물 소리를 마치 단종이 슬피 우는 소리인 것처럼 애절하게 표현한 연군가(戀君歌)이다. 원호는 단종이 승하한 뒤, 고향에 내려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여생을 보냈다 한다.

(2-6)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이존오(李存吾)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썬 이셔 任意(임의)로 돈니면서  
구텨야 光明(광명)흔 날빛출 짜라가며 덤늬니.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구름 : 간신(奸臣), 신돈(辛旽)을 가리킴  
무심(無心)튼 : 사심(邪心)이 없다는  
허랑(虛浪)하다 : 믿기 어렵다.  
중천(中天) : 여기서는 ‘조정’ 또는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높은 관세’를 뜻함  
썬 이셔 : 누리고 있어서  
임의(任意)로 : 마음대로  
돈니면서 : 다니면서  
날빛 : 햇빛  
덤늬니 : 덤늬나. 가리느냐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 구름이 제 마음대로 떠다닌다는 것은 고려말 공민왕 때의 간신 신돈의 횡포에 대한 우의적(寓意的)인 표현이다. ‘구름’으로 비유된 신돈 일파를 못 믿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中天(중천)에 썬 이셔 任意(임의)로 돈니면서 : 구름이 하늘 가운데를 자유롭게 떠다닌다는 것은 신돈 일파가 국가의 안위(安危)를 생각하지 않고 방자하게 굴고 있다는 비유이다.

구텨야 光明(광명)흔 날빛출 짜라가며 덤늬니. : 신돈 일파의 악행을 절묘한 상징을 사용해 풍자하고 있다. 총명한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총명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간신들이 임금의 선정을 방해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전문 풀이]

구름이 사심(邪心)이 없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하늘 높이 떠 있어(떠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 가며 덤늬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존오(李存吾 1341-1371) 자는 순경(順卿). 호는 석탄(石灘). 공민왕 때 우정언(右正言). 요승 신돈을 탄핵하려다가 좌천당하여 은둔 생활하다 31세로 분사하였음. 신돈의 처형 후 성군관 대사성(大司成)에 추증. 석탄집(石灘集)이 전하며 시조 3수가 전해짐  
연대 - 고려 공민왕 때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제재 - 구름  
성격 - 풍자시  
표현 - 풍유법  
내용 - 초장(간신의 사악한 말)  
중장(총정을 어지럽힘)  
종장(임금의 총명을 어둡게 함)  
주제 - 간신 신돈의 횡포 풍자

▶ 작품 해설

기록에 따르면 고려말에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시조 문학사의 제일 앞부분에 놓이는 작품이다. 임금의 총명을 해에다 비유하고 그 햇빛(공민왕)을 가리는 간신을 구름(신돈)에 비유하여 옳은 풍자성이 돋보인다. 간신을 구름에다 비유하는 것은 전통적인 동양의 표현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광명한 햇빛을 가리는 구름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처했던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준오는 공민왕 때 왕의 총애를 받던 신돈을 규탄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은 일이 있다. 그러므로 '날빛'은 '공민왕'을 '구름'은 '신돈'을 가리키고 있으며, '중천(中天)'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높은 권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초장의 '무심(無心)하다'는 것은 '사심(邪心)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조는 간신을 임금의 총애를 얻어 임금의 총명함을 흐리게 함을 풍자한 시조로 고려 말의 정치적 상황을 잘 반영했다.

(2-7) 눈 마주 휘어진 덕

원천석(元天錫)

눈 마주 휘어진 덕을 뉘러서 굽다던고.  
구불 절(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썌인가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굽다던고 : 굽었다고 하던가  
구불 절(절) : 굽힐 절개  
세한고절(歲寒孤節) : 한겨울 추위도 이겨내는 높은 절개  
구불 절(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 굽혀질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눈'은 새 왕조 조선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압력, 혹은 그러한 세력을 뜻한다.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썌인가 흐노라. :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논아>의 '歲寒然後(세한연후) 知松柏之後彫(지송백지후조) - 날씨가 차가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구절과 상통한다.

[전문 풀이]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대나무)뿐일 것이다.

[핵심 정리]  
지은이 - 원천석(元天錫, 1330-?) 호는 운곡(耘谷). 고려 말의 학자. 문집으로 <운곡시집(耘谷詩集)>과 회고가(懷古歌) 시조 2수가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회고적, 절의적
- 표현 - 상징법, 설의법, 의인법
- 제재 - 눈 속의 대나무
- 주제 - 고려 왕조에 대한 총절 다짐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곧은 총절이 시류에 부동(附同)하는 우리들의 필박에 더욱 고절(孤節)함을 느끼게 한다. 은둔하면서 절개를 지키려는 고려 유신들의 높은 우국 총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언제나 곧고, 눈 속에서도 푸른 대를 통하여 어떠한 억압

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작자의 굳은 의지를 내 보이고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인 격변기였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군신유의(君臣有義)'라는 유학자, 선비들의 덕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갈등이 시인들의 작품에 투영되었는데, 크게 옛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과 변함없는 총절을 표현한 것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애국 총절을 표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8) 님이 해오시매

송시열(宋時烈)

님이 해오시매 나는 전혀 미뎃더니  
날 스랑하던 情(정)을 뉘손딕 옴기신고  
처음에 익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랴.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해오시매 : 헤아려 주시므로  
뉘손딕 : 누구에게  
익시던 : 미워하시던  
이대도록 설오랴. : 이토록 서럽겠는가?

[전문 풀이]  
임이 나를 헤아려 주시므로 나는 전적으로 믿고 있었더니  
나를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셨더라면 이토록 서럽겠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 노론(老論)의 영수(領袖). 호는 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 저서에 <송자대전(宋子大全)><우암집(尤庵集)> 등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임금에 대한 직설적 원망  
주제 - 님의 사랑이 식었음을 탄식함. 충군(忠君) 연주(戀主)의 마음

▶ 작품 해설

조선조는 당쟁이 심한 사회였다. 노론(老論)의 영수였던 작자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갔다. 믿었던 님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옮겨 가니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 속에 이 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노래했던 '충군 연주(忠君戀主)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조는 연군가의 일종으로서, 임금의 총애가 옛날과 같지 않고 믿었던 임금의 사랑이 변하니 마음이 아픈 것이다. 조선 시대 한 계파의 거두로서 활약한 문신으로, 평생을 극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대처해 가며 살아야 했던 작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2-9) 白靄(백설)이 즈자진 골에

이색(李穡)

白靄(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매화)는 어너 곳에 피엿는고.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병와가곡집>

[시어, 시구 풀이]

백설(白雪) : 흰 눈. 여기에서는 '고려 유신(遺臣)' 을 비유함  
구름이 : 구름이. 여기에서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대표하는 조선의 '신흥 세력' 을 의미

머흐레라 : 험하구나.

매화(梅花) : 지조. 충성. 여기에서는 '우국지사(憂國志士)' 를 의미함

석양 :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 상징

서 이서 : 서서

白雪(백설)이 저자진 끝에 구름이 머흐레라. : 풍자적인 표현으로서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성계 등의 신흥세력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

반가운 梅花(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 '반가운 梅花(매화)'  
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서 고려를 지키려는 유신(遺臣)을 가리키며  
이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대세가 기울어 가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  
황을 표현한 것임.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 기울어 가는 국가  
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작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전문 풀이]

흰 눈이 찾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나를) 반겨 줄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을 모르겠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색(李穡 1328-1396).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  
隱). 문신, 학자로 고려 말 3은(三隱)의 한 사람. 저서로는 <목은집(牧  
隱集)>이 전한다.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성격 - 우국가(憂國歌)

표현 - 은유법, 풍유법

내용 - 초장(신흥 세력의 대두)

중장(우국지사에 대한 염원)

종장(우국 충정)

주제 - 우국충절, 봄을 기다리는 마음

▶ 작품 해설

작자는 왕조의 마지막인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심정을 자연의  
경치에 빗대어 표현하였을 것이다.

역사적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고민을 '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하는 탄식 속에 묻으면서도 어디선가 나타나 줄 것만  
같은 '매화' 와 연결시켜 그 정을 더해 주고 있다.

작품 전반에 걸쳐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  
는 고려 유신(遺臣)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기서, '백설, 구름, 매  
화, 석양' 등은 '고려 유신, 신흥 세력(이성계 일파), 우국 지사, 고  
려 왕조' 를 상징하고 있는 시어로서, 왕조를 다시 일으켜 보고자 하는  
충신들의 우국 충정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2-10) 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김종서(金宗瑞)

朔風(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춘디,

萬里(만리) 邊城(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잡고 서서,  
긴 폭람 큰 흥 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시어, 시구 풀이]

삭풍(朔風) : 북풍

만리(萬里) 변성(邊城) :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의 성.  
곧 육진(六鎭)

폭람 : 휘파람

朔風(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춘디, : 북방의  
국경 주변이, 매서운 북풍이 불고 차가운 눈이 내린 가운데 매우 삼엄함  
을 뜻한다.

萬里(만리) 邊城(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잡고 서서, : 함경도 땅  
육진(六鎭)을 개척하고 긴 칼을 잡고 서서 국경 넘어 여진 쪽을 바라보  
며 감회에 젖어 있는 장군의 높은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전문 풀이]

몰아치는 북풍은 양상한 나뭇가지를 스치고, 밝은 달은 눈으로 덮인  
산과 들을 비춰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성루에서 긴 칼을 힘있게 잡고 서서

길게 휘파람 불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니,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에 감히) 대적하는 것이 없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종서(金宗瑞, 1390-1453) 호는 절재(節齋). 조선 초의  
무신으로 세종 때 함경도 육진(六鎭)을 개척하는 등 북벌 정책을 수행한  
공신.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함. 수양대군에 의해 살해되었음

갈래 - 평시조

성격 - 의지적, 남성적, 우국적

표현 - 영탄법

제재 - 일장검(一長劍)

주제 - 무인의 호방(豪放)한 기상

▶ 작품 해설

조선 초 무신(武臣)에 의해 쓰여진 '변새가(邊塞歌)' 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호방한 기상과 의지가 엿보인다.

세종 때 북벌 정책을 펼쳐 육진(六鎭)을 개척한 무인(武人)답게 호  
쾌한 기상과 의지가 돋보여 '호기가(豪氣歌)' 라고도 불린다.

(2-11) 선인교 나린 물이

정도전(鄭道傳)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흘러 드  
러,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히야, 故國興亡(고국 흥망)을 무려 무슴 흐리요.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왕업(王業) : 고려의 왕조

고국흥망(故國興亡) : 고려의 흥함과 망함

무슴 흐리요 : 무엇하겠는가?

[전문 풀이]

선인교 아래 흘러가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 들어

오백 년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물 소리뿐이로구나.

아이야, 고려가 흥하고 망한 것을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핵심 정리]

지은이 - 정도전(鄭道傳 ?-1398) 조선 개국 공신. 학자. 문신. 호는

삼봉(三峰). 작품으로는 ‘납씨가(納氏歌)’ ‘정동방곡(靖東方曲)’ ‘문덕곡(文德曲)’ 등의 악장 및 시조 1수가 전해진다.

- 갈래 - 평시조
- 연대 - 조선 초
- 성격 - 회고적, 애상적
- 표현 - 영탄법, 설의법
- 주제 - 고려 왕업의 무상함, 조선 개국 공신의 고려 왕조 회고

▶ 작품 해설

고려조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회고의 시조이다. 선인교, 자하동이 그 흥왕하던 고려 왕업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속을 흐르는 물소리는 고려 왕업의 무상함, 덧없음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망국(亡國)에 대한 슬픔이나 분함보다는 잊어버리려는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이성계의 오른팔로 개국의 일등 공신인 작자의 이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고려인으로서의 일말의 애수나 마음속의 괴로움이 표출된 것을 보면 그도 한 나라의 흥망이 덧없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종장에서 ‘물소리썩이로다’ 라고 하여 인지사상정(人之常情)의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종장에서 ‘무려 무슴하리오’ 라고 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2-12) 장백산에 기를 쫓고

김종서(金宗瑞)

장백산(長白山)에 기(旗)를 쫓고, 두만강(豆滿江)에 물을 씻겨,  
 석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스나히냐.  
 어찌타, 凌烟閣上(능연각상) 누 얼굴을 그릴고.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장백산(長白山) : 백두산의 다른 이름
- 석은 : 썩은
- 선비 : 선비
- 스나히 : 사나이
- 능연각(凌烟閣) : 당 태종이 24 공신들의 얼굴을 그려 걸어 두게 했던 누각
- 얼굴 : 얼굴

[전문 풀이]

백두산에 기를 쫓고, 두만강에 말을 씻기니  
 썩은 저 선비들아, 우리 아니 사나이뇨?  
 어찌타 능연각 위에 누 얼굴을 그릴거나.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종서(金宗瑞, 1390-1453) 호는 절재(節齋). 조선 초의 무신으로 세종 때 함경도 육진(六鎭)을 개척하는 등 북벌 정책을 수행한 공신.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함. 수양대군에 의해 살해되었음.

- 갈래 - 평시조
- 성격 - 남성적, 의지적, 호기가(豪氣歌)
- 주제 - 호연지기(浩然之氣)

▶ 작품 해설

‘대호(大虎)’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씩씩하고 힘찬 작자의 기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서 당시 북방 개척의 의욕과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다.

김종서의 시조는 조선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아 가며 북방을 개척해 나갈 때의 기상을 씩씩하고 힘찬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 전기

의 기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2-13) 장안을 도라보니

이현보(李賢輔)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농암집(龕巖集), 어부단가(漁父短歌)>

[시어, 시구 풀이]

- 장안(長安) : 서울의 이름
- 북궐(北闕) : 경복궁의 다른 이름
- 어주(漁舟) : 고기잡이배
- 니즌 스치 : 잊은 적이
-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 사람

[전문 풀이]

서울 쪽을 바라보니 궁궐이 천 리 밖에 있다.  
 내 비록 고기잡이배에 있으나 한시라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세상을 구할 현인(賢人)이 없겠느냐?

[핵심 정리]

지은이 - 이현보(李賢輔, 1467-1555)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농암(龕巖). 작품으로는 전하여 오던 <어부가>를 장가 9장, 단가 5장으로 고쳐 지은 것과 <호빈가>, <농암가>, <생일가> 등의 시조 작품 8수가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농암문집(龕巖文集)>이 전해진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자연애, 우국가
- 주제 - 자연과 함께 하는 물아일체의 삶, 나라에 대한 걱정

▶ 작품 해설

이현보는 고려 때부터 전해 오던 ‘어부가’를 장가는 12장을 9장으로, 단가는 10장을 5장으로 줄여서 개작(改作)하였는데, 위에 실린 것은 단가(短歌) 5장 중 셋째 수이다.

이 ‘어부가’는 조선 왕조 말기에 많이 불려진 십이 가사 속에 들어 있어 일반에게 널리 불려졌으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후에 고산(孤山)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한다면, 유선도의 작품에는 작자가 어부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생활했기에 박진감이 나타나 있고,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다면, 이현보의 작품은 은일(隱逸)적이며 도피주의적이고, 어부의 생활을 상상하고 동경하여 노래했으며 거의 한문투로 표현한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14) 십년 ㄱ온 칼이

이순신(李舜臣)

十年(십년) ㄱ온 칼이 匣裏(갑리)에 우노리랴.  
 關山(관산)을 바라보며 새재로 댈져 보니  
 丈夫(장부)의 爲國功勳(위국 공훈)을 어찌 새에 드리울고.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갑리(匣裏) : 갑 속, 칼집 속

관산(關山) : 관문(關門).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

위국공훈(爲國功勳) : 나라를 위하여 세운 큰 공

十年(십년) 又은 칼이 匣裏(갑리)에 우노되라. : 나라의 위기에 대비하여 오랫동안 싸울 준비를 해 왔으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움과 울분에 차 있다는 뜻이다.

丈夫(장부)의 爲國功勳(위국 공훈)을 어찌 세에 드리울고. : 장부는 모름지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서, 그 이름을 세상에 길이 전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임을 의미한다.

[전문 풀이]

십 년이나 갈아 온 칼이 갑(칼집) 속에서 우는구나.

관문(국경이나 요새의 성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 보니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어느 때에 세워 (임금께 그 영광을) 드릴까?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시호는 충무공(忠武公). 조선의 명장(名將).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 2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의지적, 남성적, 우국적

표현 - 의인법

제재 - 칼

주제 - 우국 충정과 장부의 호기(豪氣)

▶ 작품 해설

어느 때 어떤 경우에도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무인(武人)으로서의 굳은 결의와 충성심이 잘 드러난 시조이다.

임진왜란 때, 전쟁터에서 우국 충절을 노래한 이순신의 '진중시(陣中詩)' 로,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무인으로서의 굳은 결의와 충성심이 잘 드러나 있다.

(2-15) 오백년 도읍지를

길재(吉再)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되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쑤이런가 하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오백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 : 고려의 옛 서울 송도를 가리킨다. 필마(匹馬) : 한 필의 말. 벼슬을 하지 않은 신세. 즉 새 왕조[이성계]에 협조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외로운 신세를 말한다.

의구(依舊) : 옛날과 같음

태평연월(太平烟月) : 태평스런 시절

쑤 : '무상감'의 비유적 표현이다.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되 없다. : 산천의 모습은 예나 변함이 없으나, 인걸(옛 고려의 신하들)은 사라지고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대조법으로 표현되어 무상감을 느끼게 하여 두보의

시 '춘망(春望)' 중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城春草木深(성춘초목심) →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물만 있고 성안에 봄에는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쑤이런가 하노라. : 고려의 흥성했던 옛 시절이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아 허무함을 영탄법으로 노래하였다.

[전문 풀이]

오백 년이나 이어 온 고려의 옛 서울(송도, 개성)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 없으나, 인걸은 간 데 없다.

아, (슬프다!)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한날 꿈처럼 허무하도다.

[핵심 정리]

지은이 - 길재(吉再, 1330-?) 호는 아은(冶隱).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말 3대 유신(遺臣). 문집으로 <아은선생언행습유(冶隱先生言行拾遺)>가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회고적, 감상적

표현 - 대조법, 영탄법

제재 - 오백 년 도읍지

주제 - 고려 왕조 회고

▶ 작품 해설

고려 유신으로서 망국의 한(恨)을 노래한 회고가로, '필마'에는 벼슬하지 않은 외로운 신세, '태평연월'에는 고려조의 흥성했던 시절, '쑤이런가'에는 무상감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인 격변기였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군신유의(君臣有義)'라는 유학자, 선비들의 덕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갈등이 시인들의 작품에 투영되었는데, 크게 옛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과 변함 없는 충절을 표현한 것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애국·충절을 표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16) 한산섬 들 밝근 밤의

이순신(李舜臣)

閑山(한산)섬 들 밝근 밤의 戍樓(수루)에 혼자 안자,  
큰 칼 녀피 차고 기픈 시름 하는 적의,  
어디서 一聲胡笳(일성 호가)는 늙의 애를 굶느니.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수루(戍樓) : 수자리 터에 망루. '수자리'는 국경 경비의 임무 또는 그 임무에 종사하는 민병대

녀피 : 옆에. '허리에'의 뜻

기픈 시름 : 깊은 시름. 나라에 대한 근심

일성호가(一聲胡笳) : 한 곡조의 구슬픈 피리 소리. '호가(胡笳)'는 호인(胡人)들이 갈일을 맡아서 불던 저[箛-피리]로서, 소리가 처량하다.

애를 : 창자를

굶느니 : 굶느냐

[전문 풀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피리소리가 남의 창자를 굶어 놓으려 하

느냐?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시호는 충무공(忠武公). 조선의 명장(名將).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 2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진중시(陣中詩). 우곡가(憂國歌)

표현 - 직설법, 과장법

제재 - 칼, 일성호가(一聲胡笳)

주제 - 우곡(憂國)

▶ 작품 해설

임진왜란 때의 진중작(陣中作)으로 알려진 이 노래는 선조 28년(1595)에 지은 것이다. 성웅이자 제독인 지은이는 국난(國難)을 당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이다. 때마침 들려 오는 구슬픈 피리 소리는 더욱 마음을 졸이게 한다. '애를 굶느니'에서 나라의 위기를 한 몸으로 지탱하려던 한 장수의 우곡(憂國) 일념과 더불어 인간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

(2-17) 鐵嶺(철령) 노끈 봉(봉)을

이항복(李恒福)

鐵嶺(철령) 노끈 峰(봉)을 쉬어 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고신 원루)를 비 사마 썩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 심처)에 썩려 본들 엇드리.  
<진본 청구영언(珍本 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구름 : 귀양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입한 소재.

고신 원루(孤臣冤淚) : 외로운 신하의 억울하고 원통한 눈물

구중 심처(九重深處) : 임금이 머무는 궁궐을 이르는 말

비 사마 : 비를 삼아, 비를 만들어

님 : 광해군을 가리킴

[전문 풀이]

철령 높은 봉우리를 단숨에 넘지 못하고, 쉬었다가 넘는 저 구름아, 임금의 총애를 잃고 유배길에 오르는 외로운 신하의 서러움이 맺힌 눈물을 비 대신으로 띄워 가지고 가서, 임금이 계신 깊은 대궐 안에 뿌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오성과 한음'의 일화로 유명한 조선 중기 때의 문신(文臣). 호는 백사(白沙). 벼슬은 영의정에 이름. 인목대비 폐비사건 반대하다 유배됨

갈래 - 평시조

성격 - 우의적(寓意的)

표현 - 감정이입

주제 - 연군(戀君)

▶ 작품 해설

작가가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여 한때 임금의 오해를 사서 복청 땅으로 귀양가면서까지 자신의 심정이 옳으며, 그것을 굽히지 않겠다는 일편단심을 노래한 시조다. 구름에 감정 이입하여 임 계신 대궐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굳은 지조를 노래한 시조로서, 우의적인 수법이 뛰어나다.

이 작품의 지은이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인목대비 폐모론에 극구 반

대하다가, 충간(忠諫)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유배 길에 오르자, 조정과 장래를 걱정하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작자의 충성심이 전편에 걸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유배지로 가는 도중 철령에서 바라다 본 '구름'조차도 차마 산을 빨리 넘지 못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신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 또한 작자는 자신을 고신(孤臣)이라 하여 임금의 은총을 잃은 서러움에 북받쳐 있으며, 이 서러운 마음을 임금이 계신 대궐에 비로 만들어 뿌려 자신의 총절을 보이겠노라고 결의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당시 '비 삼아 띄운다'는 표현은 무속(巫俗)적 신앙(信仰)으로서, 어떤 충성심과 절개의 표본으로까지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기상 변화로 여겨진다.

(2-18) 방 안에 헛는 촛불

이개(李垓)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 놀과 離別(이별) 헛엇관덕,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노고,  
우리도 더 燭(촛)불 갖하야 속타는 줄 모로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헛는 : 켜, 켜 있는.

촛(燭)불 : 촛불

놀과 : 누구와

이별(離別) 헛엇관덕 : 이별하였기에

디고 : 흘리고, 원뜻은 '떨어지고' 임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 놀과 離別(이별) 헛엇관덕, : 임(단종)과의 이별을 뜻함

우리도 더 燭(촛)불 갖하야 속타는 줄 모로노라. : 속이 타듯 하는 한(恨)

[전문 풀이]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은 누구의 이별을 하였기에

걸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로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슬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모로누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이개(李垓, 1417-1456) 호는 백옥헌(白玉軒).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으며,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이색(李穡)의 증손으로 시문으로 이름이 높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여성적, 감상적, 절의적

표현 - 의인법, 감정이입

주제 - 단종과의 이별의 슬픔

▶ 작품 해설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유교적 이념으로 일관하였던 사대부들은 비정한 절의(節義)와 연군(戀君)의 정이 넘치는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의 왕위 찬탈과 어린 임금 단종(端宗)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임금과의 이별을 촛불에 감정이입하여 구상화시킨 것으로 시어가 여성적 성향을 지닌 여성 편향적이며, 또 완곡한 표현으로 자신의 절의를 구상화시켰다.

절의가(絶義歌)로 알려진 다른 작품은 다음과 같다.

(2-19) 간 밤의 부던 바람에

유응부(兪應孚)

간 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피라.  
 흐물며 못 다 핀 꽃이야 날려 무슴 흐리오.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간 밤의 : 지난 밤에

부던 : 불던

바람에 : 바람에

눈서리 : 눈과 서리. '수양 대군(세조)의 숙청' 을 비유한 말

치단말가 : 쳤다는 말인가

落落長松(낙락장송) : 가지가 길게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여기서는 지조가 굳고 고결한 인품의 인재를 가리킴(은유)

가노피라 : 가는구나

핀 : 핀

꽃이야 : 꽃이야

날려 : 일러. 말하여

무슴 흐리오 : 무엇 하리오

[전문 풀이]

지난 밤에 불며 모진 바람에 눈과 서리까지 몰아쳤단 말인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쓰러져 가고 있구나.(저와 같이 큰 소나무가 쓰러질진대)

하물며 피지도 못한 꽃이야 말해서 무엇하리오.

[핵심 정리]

지은이 - 유응부(兪應孚, ?-1456)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신지(信之). 또는 선장(善長). 호는 벽량(碧梁). 사육신 중 단 한 사람의 무인이었다. 작품으로 시조 3수가 전해진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우국가(憂國歌)

표현 - 풍자적. 은유법. 영탄법

구성 -

초장(기) : 간밤에 있었던 세조의 포악(과거)

중장(서) : 아침에 들은 비통한 소식(현재)

종장(결) : 닥쳐 올 비극의 예언(미래)

제재 - 중신(重臣)의 희생

주제 - 인재 희생에 대한 개탄. 우국 충정

▶ 작품 해설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 즉위 후, 숙부(叔父)인 수양 대군이 왕위 찬탈의 뜻을 품고 정인지, 한명회 등과 결탁, 김종서와 황보인 등 중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癸酉靖難)을 풍자한 작품이다.

초중종장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구성으로 원인→결과→가상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낙락장송' 은 김종서를 비롯한 중신들의 희생을, '못다 핀 꽃' 은 김종서와 같이 참살된 그의 아들을 비롯한 정의의 청년 학사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

김종서 등 공신이 세조의 포악한 횡포에 쓰러지자, 세대를 탄식하여 읊은 이 시조는 작자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자는 뒤에 단종(端宗)의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참살되었다.

(2-20) 金生麗水(금생여수) | 라 혼들

박팽년(朴彭年)

金生麗水(금생여수) | 라 혼들 물마다 金(금)이 남너  
 玉出崑崙(옥출곤강)이라 혼들 외마다 玉(옥)이 날쓰야  
 암으리 思郎(사랑)이 重(중)타 혼들 님남마다 좃출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金生麗水(금생여수) : 금은 아름다운 물에서 남

玉出崑崙(옥출곤강) : 옥은 곤강에서 남. '崑崙' 은 옥이 나는 산, 또는 곤륜산(崑崙山)의 다른 이름

외마다 : 산마다

날쓰야 : 나갠느냐. 날 것이냐

암으리 : 아무리

좃출야 : 따르라

[전문 풀이]

아름다운 물에서 금이 난다고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곤강(옥이 나는 산)에서 옥이 난다 한들 산마다 옥이 나겠는가?

아무리 사랑이 중하다고 한들 임마다 따르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박팽년(朴彭年, 1417-1456) 호는 취금현(醉琴軒). 세종 때 집현전 학자로 사육신의 한 사람. 경학(經學), 문장, 필법 등이 뛰어났으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었다. 시조 2수가 전해진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절의가(節義歌)

표현 - 대구법. 설의법

구성 -

초장(기) : 金生麗水(금생여수) - 金(성군)

중장(승) : 玉出崑崙(옥출곤강) - 玉(성군)

종장(전,결) : 단종에 대한 굳은 충절

제재 - 일편단심(一片丹心)

주제 -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

▶ 작품 해설

수양 대군이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한 뒤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왕위에 오르자, 작자는 관찰사가 되어 충주로 내려갔다가 뒤에 형조 참판이 되어 서울로 돌아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김질(金磻)의 밀고(密告)로 처형되었다.

초중장은 대구적 표현으로 종장에 대한 전제가 되고, 종장은 주제장으로 앞의 전제에 대한 단정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금(金)과 옥(玉)은 성군(聖君)에 비겨 충군(忠君)의 정절을 확인했다.

임금을 섬기되 분별없이 여러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 기교로 노래했다. 수양 대군이 단종을 몰아 내고 왕위에 올랐음으로, 어린 단종을 위해 애끓는 충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2-21) 녹이상제 술지게 먹여

최영(崔瑩)

綠驕霜蹄(녹이상제) 술지게 먹여 시늬=물에 씻겨 탁  
 고,  
 龍泉雪鏹(용천설악)을 들게 갈아 두러메고,  
 丈夫(장부)의 爲國忠節(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흐노라.  
 <가곡원류>

[시어, 시구 풀이]

- 綠駟(녹이) : 주(周)나라 목왕의 준마
- 霜蹄(상제) : 굽에 흰 털이 나는 좋은 말
- 綠駟霜蹄(녹이상제) : 좋은 말의 대유
- 솔지게 : 살지게
- 씻겨 타고 : 씻겨 타고
- 龍泉(용천) : 보검의 이름
- 雪鏑(설악) : 날카로운 칼날
- 龍泉雪鏑(용천설악) : 좋은 칼의 대유
- 들게 갈아 : 잘 들게 갈아서
- 두러메고 : 둘러메고
- 丈夫(장부) :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
- 爲國忠節(위국충절) :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절개

[전문 풀이]

녹이상제와 같은 명마를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서 타고, 용천설악과 같은 보검을 잘 들게 갈아서 둘러메고,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절개를 세워 보려 하노라.

[핵심 정리]

- 지은이 - 최영(崔瑩 1316-1388) 고려 말기의 장군. 우왕 때 팔도도 통사가 되어 친원파로서 명나라를 치려고 압록강을 건넜다가 이성계의 회군으로 실패하고 후에 그에게 피살되었다.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 율격 - 3(4)4조. 4음보
- 성격 - 호기가(豪氣歌)
- 제재 - 명마(名馬)와 보검(寶劍)
- 주제 - 위국충절(爲國忠節)

▶ 작품 해설

최영은 공민왕 때 흥건적으로 물리치고, 우왕 때 왜구를 물리치는 등 빛나는 공로를 세웠고,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할 때 최영은 팔도도통사로 정명군(征明軍)을 일으키는 등 고려 왕조의 최후를 지키는 자랑스런 기상을 보여 주었다.

초장과 중장은 준마(綠駟霜蹄)와 보검(龍泉雪鏑)을 소재로 해서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무인의 호기를 대구법에 의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종장에서는 위국 충절을 다짐하는 주제가 돋보인다.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장군의 기상이 담긴 호기가(豪氣歌)이다.

이 시조에는 하루에 천 리나 달린다는 준마를 타고, 용천검을 갖춘 대장부의 능률한 기상과 무인으로서의 기개를 한껏 펼치고자 한 지은이의 우국 충정이 숨김없이 나타나 있다. 지은이의 이러한 무인다운 호기(豪氣)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가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 하였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할 정도로 깨끗했으며, 지은이가 죽은 뒤 정말 그의 무덤에는 풀이 한 포기도 나지 않아 그의 무덤을 가리켜 적분(赤墳 - 붉은 무덤)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2-22) 주려 주그려 ㅎ고

주의식(朱義植)

주려 주그려 ㅎ고 首陽山(수양산)에 드럿거니,  
헌마 고사리를 머그려 킨야시라.  
物性(물성)이 구븐 줄 의위 퍼 보려고 킨미라.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주려 : 굶주려
- 주그려 ㅎ고 : 죽으려고
- 首陽山(수양산) :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 드럿거니 : 들어갔는데
- 헌마 : 설마
- 킨야시라 : 깨었으랴
- 物性(물성) : 물건이 성질
- 구븐 줄 : 굽은 것이
- 킨미라 : 캔 것이다

[전문 풀이]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으려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깨었는가? 고사리의 생김새가 곧지 못하고 굽은 것이 미워서 그것을 곧게 펴 보려고 캔 것이다.

[핵심 정리]

- 지은이 - 주의식(朱義植 ?-?) 조선 숙종 때의 가인(歌人). 호는 남곡(南谷). 칠원 현감을 지냈으며 시조에 뛰어났고 묵매(墨梅)도 잘 그렸음. 도덕적이고 건실한 내용의 노래를 많이 지었으며 시조 14수가 전함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 율격 - 3(4)4조. 4음보
- 성격 - 풍자적. 해학적
- 제재 - 백아숙제
- 주제 - 백아숙제의 절개 옹호

▶ 작품 해설

매우 재미있는 착상의 노래이다. 주 무왕의 역성(易姓) 혁명에 반대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 죽은 백아숙제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백아숙제가 고사리를 캔 것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끝부분이 구부러진 고사리의 생김새가 미워서 그것을 곧게 펴기 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기발하고 위트가 넘친다.

이 시조는 고사리를 캐 먹은 백아숙제의 절개를 힐난한 성삼문의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ㅎ노라.' 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으로 보인다.

<참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

은나라 말 주왕(紂王)이 폭정을 일삼으므로, 제후 서백(西伯-주왕(周王))의 아들 발[發-주무왕(周武王)]이 이를 치려 하자, 백이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인(仁)이라 하겠는가?" 하고, 만류했지만, 발이 끝내 주(紂)를 치는 것을 보고 "주(周)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으리라." 고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다가 굶주려 죽었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은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으레 이들 형제를 들어 말하게 되었다.

(2-23) 풍설 석거친 날에

이정환(李廷換)

풍설 석거친 날에 못노라 北來使者(북래사자)야,  
小海容顏(소해용안)이 연매나 치오시고.  
故國(고국)의 못 죽는 孤臣(고신)이 눈물계워 ㅎ노라.  
<송암유고(松巖遺稿)>

[시어, 시구 풀이]

풍설 석거친 날에 : 바람과 서리가 뒤섞여치는 날에. 당시 병자호란을 겪은 뒤의 참담한 상황을 암시

북대 사자(北來使者) : 왕세자 등이 볼모로 잡혀 가 있던 청(淸)나라의 심양에서 온 사자(使者)

소해용안(小海容顏) : '소해(小海)'는 왕세자를 뜻하며 '용안(容顏)'은 얼굴의 높임말

언애나 : 얼마나

치오신가 : 추우신고

[전문 풀이]

눈보라가 뒤섞여 몰아치는 날에 북쪽 심양에서 온 사신에게 묻노라. (볼모로 끌려 가 계신) 왕세자의 낯빛이 얼마나 추워하시던가? 고국에서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 외로운 신하는 (서럽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정환(李廷煥, 1619-1673) 효종, 현종 때의 학자. 시인. 호는 송암(松巖). 인조 11년(1633)에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나,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보고 벼슬을 단념하고, 시작(詩作)으로 세월을 보냈다. '비가(悲歌)' 10수가 한역시(漢譯詩)와 함께 그의 문집에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우국적

표현 - 도치법

제재 - 소해용안(小海容顏)

주제 - 국치(國恥)에 대한 비분강개(悲憤慷慨). 볼모가 된 두 왕자에 대한 염려. 우국 충정

▶ 작품 해설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지은 '悲歌' 10수 중 둘째 수. 볼모로 끌려 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의 신변 염려와, 비참한 국치(國恥)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한 처지를 한탄하는 우국 충정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종장의 '小海'는 원래 우리 나라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두 왕자를 가리키며, '孤臣'은 자신을 가리킨다.

(2-24)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元天錫)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유수(有數)하니: 유수가 매여 있으니.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추초(秋草) | 로다: 가을 풀이로다. 황폐해져 있음을 비유한 말

목적(牧笛): 목동의 피리 소리

부쳐시니: 남아 있으니. 깃들여 있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눈물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전문 풀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궁터)도 가을 풀이 우거져 황폐하다.

고려 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해 지는 무렵에 이 곳을 지나는 객(나그네)이 눈물겨워 하노라.

[핵심 정리]

작자 - 원천석(元天錫, 1330-?) 호는 운곡(耘谷). 고려 말의 학자. 문집으로 <운곡시집(耘谷詩集)>과 회고가(懷古歌) 시조 2수가 전한다.

연대 - 고려 말

성격 - 회고적, 감상적

표현 - 은유법, 영탄법, 중의법

내용 - 초장(쓸쓸함) 중장(무상함) 종장(고려 왕조 멸망에서 느끼는 감회)

주제 - 고려 왕조 회고. 고려 멸망을 슬퍼함

▶ 작품 해설

삼초가 우거진 옛 궁전 터를 바라보며 지은 고려 유신(遺臣)의 회고(懷古歌)로, 인세(人世)의 무상함을 개탄한 애절한 정한(情恨)이 담겨 있는 시조이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작자가 옛 도읍지였던 개성의 궁궐터를 돌아보면 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회고가(懷古歌)'로서, 대부분의 회고가의 전개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나라의 멸망을 읊은 뒤에,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으며, 그 어조(語調) 또한 여성적이고 소극적이다.

초장에서의 '만월대'는 고려 왕조를, '추초'는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초장에서 시각적인 현실과 중장에서 청각적인 연상을 대조하였다. 종장에서는 자신을 '객(客)'으로 표현하여 주관적 심회를 객관화시킨 묘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초·중장은 서경적, 종장은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3 江湖閑情 ○

(3-1) 대초 볼 볼근 골에

황희(黃喜)

대초 볼 볼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뵈 그르헤 게는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대초 볼 : 대추의 볼. 붉게 익은 통통한 대추

뿔뜨르며 : 떨어지며

뵈 : 뵈

그르헤 : 그루에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햅쌀로 빚은 술이 익었는데, 마침 체 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그 체로 새 술을 걸러서 마시지 않고 어찌라?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의 뜻으로, 속담 '장수 나자 용마(龍馬) 난다.'와 같은 의미이다.

[전문 풀이]

대추가 발갈게 익은 골짜기에 밤이 어찌 (익어) 똑똑 떨어지며

벼를 뵈 그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마침 햅쌀로 빚어 넣은) 술이 익었는데 체 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새 체로 술을 걸러서) 먹지 않고 어찌하리.

[핵심 정리]

지은이 - 황희(黃喜, 1363-1452) 조선 초의 명 정승. 호는 방촌(龐村). 문집 <방촌집(龐村集)>과 시조 세 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풍류적, 낭만적, 목가적, 한정가(閑情歌)

표현 - 점층법  
제재 - 늦가을 농촌 생활  
주제 -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흥겨움

▶ 작품 해설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다. 대추와 밤이 익어 저절로 떨어지고, 벼 베는 그루에 게가 기어 오르고, 담근 술마저 익었는데, 때마침 채 장수까지 지나가니 어찌 술을 마시지 않겠느냐는 시상 전개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우리의 민족적 정서인 '멋' 이 잘 표현된 노래로서 정겨운 농촌의 풍경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한호(韓濩)의 '짚 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 들 못 안즈랴' 와 그 풍취가 유사한 시조다.

(3-2) 말 업슨 청산이요

성훈(成渾)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태(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화원악보>

[시어, 시구 풀이]

태(태) 업슨 : 모양이 없는  
갑 업슨 :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님즈 업슨 : 임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분별(分別) 업시 : 아무 걱정 없이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태(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 청산과 유수가 대구가 되어 자연의 의연함과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지은이는 지자(知者)와 인자(仁者)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 청풍과 명월이 대구가 되어 세속을 떠난 자연 친화를 노래하였다.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 자연 속에 몸을 맡겨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에서 세속적인 근심 걱정 같은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전문 풀이]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모양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이로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성훈(成渾, 1535-1598) 호는 우계(牛溪). 묵암(默庵). 선조 때 이율곡과 이기(理氣)의 학문을 토론함. 저서로는 <우계집(牛溪集)>이 있고, 시조 세 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풍류적, 전원적, 달관적(達觀的), 한정가(閑情歌)  
표현 - 대구법, 의인법  
제재 -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주제 -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

▶ 작품 해설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 세파에 찌든 마음을 씻고 정신적 안식을 찾았다. 따라서, 시조의 소재도 자연에서 즐겨 찾았다.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 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말 없는 청산(靑山)과 모양이 없는 유수(流水)를 벗하며 세 속의 명리(名利)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옛 선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없다' 라는 말의 반복으로 표현의 묘를 더하고 있다.

(3-3) 땀이 땀다 울고

이정신(李廷薰)

매암이 땀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땀다가 박주(薄酒)를 쓰다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시니 땀고 쓴 줄 몰너라.  
<가곡원류(歌曲源流)>

[시어, 시구 풀이]

산채(山菜) : 산나물  
박주(薄酒) : 맛없고 질이 떨어지는 술

[전문 풀이]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람이 쓰다고 우니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박주가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시골의 궁벽한 곳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정신(李廷薰, 연대 미상)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호는 백회재(百梅齋). 여러 가집에 시조 13수(그 중 1수는 불확실)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閑情歌)  
주제 -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자연과 함께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

▶ 작품 해설

'매미'와 '쓰르람'이라는 말의 첫 음에서 연상되는 생각을 펴고 있다. 매우 기발한 착상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담고 있어서 시의 언어가 지닌 묘미를 보여 준다.

이 시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매미'와 '쓰르람'의 첫 음에서 '맵'고 '쓰'다는 미각적(味覺的) 심상을 이끌어 내어, 초야에 파묻힌 조촐한 생활의 유희자적(悠悠自適)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서사 문학의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인의 언어적 묘미를 맛보게 한다는 점이다.

(3-4) 십년을 경영하야

송순(宋純)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너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맛져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뉘 업스니 돌너 두고 보리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경영(經營)하야 : 계획하여, 마음 속으로 꾸미어  
초려삼간(草廬三間) : 세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초가. 초가 삼간

맛져 : 맡기어

江山(강산)은 드릴 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아름다운 산수는 집안에 들어 놓을 곳이(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 집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 두고 즐겁게 보리라.

[전문 풀이]

십 년을 살면서 초가삼간 지어 났으니  
(그 초가삼간에) 나 한 간, 달 한 간, 맑은 바람 한 간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이대로 둘러 두고 보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송순(宋純 1493-1583) 호는 면양정(倅仰亭), 기촌(企村). 조선 중종-선조 때의 문신. 치사(致仕)하고 담양(潭陽) 제월봉 아래에 석림정사(石林精舍)와 면양정(倅仰亭)을 짓고 가곡을 지었다. 황진이와 함께 시가 문학의 정수를 계승하여 명작들을 남겼다. 저서로는 <기론잡>과 <면양잡>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면양정가'가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전원적, 관조적, 풍류적, 낭만적, 한정가  
표현 - 과장법  
제재 - 전원 생활  
주제 - 자연 귀의(自然歸依), 안빈낙도(安貧樂道)

▶ 작품 해설

시대부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진실과 풍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강호 가도(江湖歌道)와 풍류 정신(風流精神)의 길을 트는 것이다.

자연에 몰입한 경지가 돋보이는 삶의 자세에서 작자의 높은 정신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조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한 경지를 노래한 한정가(閑情歌)이다. 자연 친화를 통하여 안분지족(安分知足), 안빈낙도의 삶의 지혜를 터득한 작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3-5) 田園(전원)에 나온 興(흥)을

김천택(金天澤)

田園(전원)에 나온 興(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溪山(계산) 나그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온 帑(히)를 보내리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전나귀 : 밭을 저는 나귀  
계산(溪山) : 계곡을 낀 산  
흥치며 : 흥겨워하며  
금서(琴書) : 거문고와 서책  
다스려라 : 준비하여라

[전문 풀이]

전원을 즐기다가 남은 흥을, 밭을 저는 나귀의 등에 모두 싣고  
계곡이 있는 산의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아이야, 거문고와 책을 다스려라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천택(金天澤, 연대 미상) 호는 남파(南坡).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1728년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을 편찬하였으며, 김수장(金壽長)과 함께 '경정산 가단(敬亭山 歌壇)'을 결성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해동가요(海東歌謠)'에 많은 시조 작품이 전하고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閑情歌)  
표현 - 중의법(重意法)  
제재 - 전원의 흥취  
주제 - 전원에서 느끼는 흥취. 자연 속에서 누리는 풍류

▶ 작품 해설

김천택의 시조에서 자연(自然)은 흥취의 대상이다. 자연 자체를 심미적으로 관조하기보다는 풍류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실컷 풍류를 즐기며 놀다가 밭을 저는 나귀에 몸을 싣고 돌아와,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보내려는 작자의 모습은 한가함과 여유로움이 가득 찬 모습이다. 특히 '전원'은 심미의 대상이 아니라 풍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대(前代)의 상황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3-6)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曹植)

頭流山(두류산) 兩端水(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도화) 쓴 맑은 물에 山影(산영)조차 잠겼세라.  
아히야 武陵(무릉)이 어디오 나는 연가 흥노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두류산(頭流山) : 지리산의 별칭  
양단수(兩端水) : 두 갈래로 갈라진 물줄기. 물 이름  
네 듯고 : 옛날에 듣고  
산영(山影)조차 : 산 그림자까지  
잠겼세라 : 잠겼구나. 잠겨 있구나  
무릉(武陵) : 무릉도원의 준말로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가>에 나오는 이상향

[전문 풀이]

지리산의 두 갈래 흐르는 물을 옛날에 듣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복숭아꽃이 떠내려가는 맑은 물에 산 그림자까지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조식(曹植, 1501-1572) 조선 명종 때의 학자. 호는 남명(南冥). 어려서부터 제자 백가(諸子百家)에 통하고 학문이 깊었으나, 산야에 은거(隱居)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퇴계 이황과 함께 명성이 높았으며, 광해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 등의 가사와 3수의 시조가 전해진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閑情歌)  
표현 - 문답법, 영탄법  
구성 -  
초장(기) : 말로만 들은 두류산 양단수  
중장(승) : 실제로 본 두류산 양단수 승경  
종장(전, 결) : 무릉을 실감케 하는 선경  
제재 - 두류산  
주제 - 지리산 양단수의 승경(勝景)을 찬미(讚美)함. 절경에 대한 감탄. 자연에의 귀의(歸依)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지리산의 승경(勝景)을 선경(仙境)에 비유하여 찬미하면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장의 ‘무릉’은 ‘무릉도원’을 뜻하는 말로, 낙원을 가리킨다.

지은이가 중국의 죽림 칠현(竹林七賢)을 본받은 산림학파(山林學派)의 한 사람으로, 수차에 걸친 관직에의 부름을 물리치고 지리산의 덕소동(德小洞)에 살며 산천재(山天齋)라 당호(堂號)를 짓고 사색과 연구에 전념하였다.

초장에서 지리산 양단수를 정적(靜的) 조화에 감응하고, 중장에서 맑은 물에 잠겨 있는 산영(山影)을 동적(動的) 조화에서 노래했으며, 종장에서 이 동이정(動而靜)의 승경(勝景)이 바로 무릉도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벼슬을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학문 수업에만 전념한 지은이는, 이곳 지리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에 비유하고 있다. 무릉도원은 동양인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이다. 또한, 자연 귀의(自然歸依)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즉 선경(仙境)인 것이다. 지은이는 그 곳을 지리산에서 찾고,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긴 것이다.

(3-7) 재 너머 成勸農(성권릉) 집의

정철(鄭澈)

재 너머 成勸農(성권릉)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들고,  
누운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타고,  
아히야, 네 勸農(권농) 겨시냐, 鄭座首(영좌수) 왔다  
혀여라.

<송강 가사>

[시어, 시구 풀이]

재 : 고개

成勸農(성권릉) : 성훈(成渾)을 가리킴. ‘勸農(권농)’은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달려 있으면서 농사일을 권장하던 사람

언치 : 안장 밑에 까는 털 형견

지즐타고 : 놀러 타고

아히야 : 아이야

鄭座首(영좌수) : 송강 자신을 가리킴. ‘座首(좌수)’는 향소(鄉所)의 우두머리

[전문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 권농 집의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쇼를 발로 차서 일으켜 언치만 엮어서 놀러 타고,

아이야, 네 주인 계시냐? 정 좌수 왔다고 여쭙어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정철(鄭澈 1536-1593) 조선 선조 때의 문신. 호는 송강(松江). 서인(西人)의 영수로 당쟁에 깊이 관여함.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고전 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음. 작품에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사설시조인 “장진주사(將進酒辭)” 그리고 “훈민가(訓民歌)”를 비롯한 시조 79수가 있음. 저서에는 <송강 가사(松江歌辭)>, <송강집(松江集)>이 있음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율격 - 3(4)4조. 4음보

성격 - 전원한정가(田園閑情歌). 풍류적

표현 - 해학적 표현. 시상의 과감한 생략. 호방한 성격

제재 - 술과 벗

주제 - 전원 생활의 흥취(興趣)

▶ 작품 해설

술과 벗을 좋아하는 지은이의 풍류와 멋스러움이 토속적인 농촌의 정취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전편을 통해 생동감이 넘쳐 흐르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멋스럽게 구사하는 송강의 언어 능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작품이라 하겠다.

재 너머 성권릉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흥겨움에 누워 있는 쇼를 발로 차서 성급히 달려가는 모습에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지은이의 행동에서 해학적인 면이 보이는데, 특별히 이 시조의 특징은 시상의 과감한 생략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3-8)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김천택(金天澤)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닷톨 양이면,  
넉 힘과 넉 분(분)으로 어이 혀여 엇들썬이.  
眞實(진실)로 禁(금)혀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엇들썬이 : 얻겠느냐? 얻을 수 있겠는가?

禁(금)혀리 : 금할 사람이

논이노라 : 계속 놓고 있노라.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닷톨 양이면 :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하기 위해 힘센 사람과 다툴 것이라면. 세속적인 인간사에 매달려 자연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은근히 질타하고 있다.

[전문 풀이]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것이라면

나처럼 힘이 없고 가난한 처지(분수로)에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두고 즐기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천택(金天澤, 연대 미상) 호는 남파(南坡) 속종 때 포교를 지냈다. 창곡(唱曲)에 뛰어난 천재였으며 김수장 등과 더불어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영조 4년(1728)에 <청구영언>을 편찬하여 시가 사상 최초로 시조의 정리와 발달에 공헌한 인물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자유분방하게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인생을 즐기는 호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

표현 - 설의법

제재 - 자연의 아름다움

주제 - 자연애, 은둔하며 사는 자의 삶

▶ 작품 해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깊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 태도 안에는 신분적 질서가 존재하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다. 즉, 자신같이 약한 힘과 가난한 분수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에는 중인이란 자기 출신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자연이 양반 시대부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중인 계층도 즐길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세속적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한없는 너그러움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경관을 완상(玩賞)하며 그 속에 묻혀 유희자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힘센이 닷톨 양이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

속적인 인간사에 매달려 자연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어리 석음을 은근히 질타하고 있다고 하겠다.

(3-9)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신흥(申興)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들길이 무쳐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추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그 벗인가 호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무쳐세라 : 문혔구나  
시비(柴扉) : 사립문  
추즈리 : 찾을 사람이  
밤중만 : 밤중쯤에. 한밤중에  
일편명월(一片明月) : 한 조각 밝은 달

[전문 풀이]  
산골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문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이렇게 문혀 사는 나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  
느냐?  
다만 밤중에 나타난 한 조각 밝은 달, 그것만이 내 벗인가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신흥(申興, 1566-1628) 조선 인조 때의 학자. 문신. 호는  
상촌(象村). 이정구, 장유, 이식 등과 함께 한문 사대가(漢文四大家)로  
일컬어졌으며, 정주학자(程朱學者)로도 유명하다. 저서로는 <상촌집> 60  
권 20책이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연대 - 광해군 때  
성격 - 한정가  
표현 - 영탄법, 설의법  
제재 - 눈, 들길, 명월  
주제 - 은사(隱士)의 한정(閑情). 자연 속에 사는 고독과 은일(隱  
逸)

▶ 작품 해설  
산촌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선비의 고결한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  
다.  
인목대비 폐위 사건인 계축(癸丑)년의 옥사 때 고향인 춘천 근교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조이다.  
이 작품에서는 겨울밤의 고요하고 쓸쓸한 정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산촌, 눈, 들길, 사립문, 달' 로 이어지는 풍경의 묘사가 감각적이다.  
주요 소재로 쓰인 것들이 모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물들이다. 이  
러한 소재들은 세속을 떠난 작자의 냉정한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10)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이조년(李兆年)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  
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냐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호여 줌 못 드러 호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이화(梨花) : 배나무꽃. '애상, 곁백, 청초, 냉당' 등의 이미지를  
지님  
은한(銀漢) : 은하수  
삼경(三更) : 한밤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시(子時), 병야(丙  
夜)라고도 함  
일지춘심(一枝春心) : 나뭇가지에 깃들여 있는 봄날의 마음  
자규(子規) : 소쩍새, 접동새. '불여귀, 귀촉도, 두견' 등의 별칭  
이 있으며 '처절, 고독, 애원' 의 이미지를 지님

[전문 풀이]  
히얇게 핀 배꽃에 달은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  
는 때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가 알고서 저리 우는 것일  
까마는  
다정다감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조년(1269-1343) 고려 말 학자. 정치가. 자는 원로(元  
老). 호는 매운당(梅雲堂) 또는 백화헌(百花軒).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성격 - 다정가(多情歌)  
표현 - 상징법, 의인법.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잘 어우러져  
봄밤의 애상적 정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내용 - 초장(봄밤의 배경) 중장(봄밤의 애뜻한 감정) 종장(봄밤의  
애상)  
주제 - 봄밤의 애상적(哀傷的) 정서

▶ 작품 해설  
봄날의 한밤중을 배경으로 하여 밝은 달 아래 눈물을 머금은 듯한  
배꽃, 어디선가 들리는 두견의 울음소리가 더욱 애상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여 주는 작품이다. 봄밤의 정서가 이화, 월백, 은한 등의 백색 이미지  
와 자규가 지니는 처절, 애원, 고독의 이미지에 연결되어 더욱 애상적인  
정환을 나타내 주면서 모든 시상이 '춘심' 에 집약되고 있다. '다정  
가' 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고려 시조 가운데 표현 기법이 정서면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한편, 지은이가 정치를 비판하다가 고향으로 밀려나서, 충혜왕(忠惠  
王)의 잘못을 격정한 심정을 하소연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작품이다.

<참고> 이조년의 시조 한역(漢譯)  
梨花月白三更天(이화월백삼경천)  
啼血聲聲怨杜鵑(제혈성성원두견)  
儘覺多情原是病(진각다정원시병)  
不關人事不成眠(불관인사불성면)  
- 신위(申緯)의 <경수당전고(警脩堂全藁)>

(3-11) 잔 들고 혼자 안자[만흥(漫興)]

윤선도(尹善道)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 호라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도하 호노라.  
<고산유고(孤山遺稿)>

[시어, 시구 풀이]

외출 : 산을

오다 : 온가고

우음도 : 웃음도

아녀도 : 아니하여도

물내 묘하 : 못내 좋아. 물다[좋아하다-好]

말숨도 우음도 아녀도 물내 묘하 호노라. :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隱士)의 한정(閑情)이 잘 나타나 있다.

[전문 풀이]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해도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라.

산은 말썸도 웃음도 짓지 아니하지만, 어떤 말 어떤 웃음보다도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윤선도(尹善道, 1587-1671) 조선 선조-현종 때의 문신. 호는 고산(孤山). 송강 정철과 국문학사상 쌍벽을 이룬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나 속화(俗化)된 자연을 시로써 승화시켰다. 작품으로는 '견회요'와 '우후요(雨後謠)', '산중신곡(山中新曲)', '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 등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연시조 '만흥(漫興)' 6수 중 셋째 수임

성격 - 한정가(閑情歌)

표현 - 설의법

제재 - 자연을 벗하는 생활

주제 -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의 한정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산중신곡' 가운데 6수로 된 연시조 '만흥(漫興)' 중의 셋째 수이다. 인간과 교섭을 끊고 먼 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문득 마음 속에 박혀 있는 산의 모습. 웅장함이여, 태연 자약함이여, 세상의 무엇보다도 미덥고 반가운 모습. 말없는 말을, 웃음 없는 웃음을 이심전심으로 느끼면서 황홀한 기쁨에 젖는다. 때로는 사람이 그림기도 하고 친구가 찾아오면 좋으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져 보지만, 이제는 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자연에 몰입되어 무아경(無我境)에 든 산같이 의연한 고산(孤山) 윤선도의 고고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윤선도의 시조는 조선 전기 시조에서 본 강호 가도(江湖歌道)를 한층 발전시켰다. 멀리 바라보이는 산과 현연 일체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참고> '만흥(漫興)' 전편의 풀이와 주제

1

山水間(산수간) 바회 아래 쭈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윤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분)인가 호노라.

[풀이]

산과 시내 사이 바위 아래에 움막을 지으려 하니,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마음에는 이것이 분수에 맞는 것이라 생각

하노라.

[주제]

분수에 맞는 생활

2

보리밥 풋늬물을 얼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긋 물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은 녀나는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풀이]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마음껏 놀고 있노라.

이렇게 한가로이 노닐고 있으니 그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까닭이 있겠느냐?

[주제]

안빈 낙도(安貧樂道)

3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외출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숨도 우음도 아녀도 물내 묘하 호노라.

[풀이]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산이 말썸하거나 웃음을 짓지도 않건만 나는 그를 한없이 좋아하는라.

[주제]

자연을 벗하는 한정(閑情)

4

누고서三公(삼공)도곤 닛다 호더니 萬乘(만승)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 허유) | 낙뎃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라.

[풀이]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보다 닛다고 하더니만 만승천자라고 한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길 데가 없으리라.

[주제]

자연 속에서의 그윽한 흥취

5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락실샤.

人間(인간) 萬事(만사)를 호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江山(강산)을 덕히라 호시도다.

[풀이]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 님을 상대가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6

江山(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분)으로 누얼느냐.

님군 恩惠(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풀이]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겠는가.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아무리 값으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구나.

[주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읍(感泣)함

(3-12) 샷갯세 되롱이 입고

김광필(金宏弼)

샷갯세 되롱이 입고 細雨 中(세우중)에 호외 메고

山田(산전)을 훑다다가 綠陰(녹음)에 누어시니,  
牧童(목동)이 牛羊(우양)을 모라다가 잠든 날을 썬와  
다.

<병와가곡집>

[시어 '시구 풀이]

도롱이 : 도롱이. 일종의 비옷으로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우장(雨裝). 녹사의(綠蓑衣). 사의(蓑衣).

細雨 中(세우중) : 가랑비 속에

호미 : 호미

山田(산전) : 산에 있는 밭

훑다다가 : 훑어 매다가

綠陰(녹음) : 나무가 우거져 그늘을 이룸

牛羊(우양) : 소와 양

모라다가 : 몰아다가

썬와다 : 깨우는도다

[전문 풀이]

머리에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미를  
메고

산 속의 밭을 매다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웠더니, 스스로 잠 속에 빠  
져 들어갔다

목동이 소와 염소를 몰고 와 그 울음 소리에 잠든 나를 깨우는도다.

[핵심 정리]

지은이 - 김광필(金宏弼 1454~1504) 조선 성종-연산군 때의 문신이  
며 학자.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 김종직의 문하(門下)  
로 성리학을 배웠으며, 형조 좌랑을 역임.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좌되  
어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생애를 마침

갈래 - 평시조

성격 - 전원 한정가

제재 - 가랑비, 목동

주제 - 한가롭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

참고 - 맹사성(孟思誠)의 작품이라고도 함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김광필이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귀양살이와 은  
둔 생활을 하는 동안에 궁궐의 조정을 멀리하고서, 한가롭게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읊은 시조다.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도 밭을 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일을 한  
후, 나무 그늘에 누워 한숨 자다가 평화롭게 우는 소와 양떼들 때문에  
잠을 깨는 풍경이 하나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짧은 글 속에 작자의 감각적인 좋은 묘사가 잘 나타나 있고, 벼슬을  
떠나서 전원 생활에 만족하는 작자의 심정이 엿보인다.

(3-13) 바람이 눈을 모라

안민영(安玟英)

바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딪치니,  
찬 氣運(기운) 식여 드러 잠든 梅花(매화)를 侵擄(침  
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냐.

<금옥총부(金玉叢部)>

[시어, 시구 풀이]

침노한다 : 개개거나 해치다.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다

얼우려 하인들 : 열게 하려 한들

아슬소냐 : 빼앗을소냐.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문 풀이]

바람이 눈을 몰고 와서 산가의 창문에 부딪치니

찬 기운이 방으로 새어 들어와 잠자고 있는 매화를 괴롭힌다.

하지만 아무리 추운 날씨에 매화가지를 열게 하려 한들 새 봄이 찾  
아옴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빼앗지는 못하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안민영(安玟英, 1816-?) 조선 고종 때의 가인(歌人). 호는  
주옹(周翁). 박효관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  
류>(1876년)를 엮었다. 시조집 '금옥총부(金玉叢部)', 저서로 '주옹  
만록(周翁漫錄)' 이 있다.

갈래 - 연시조 '매화사(梅花詞)'의 여섯째수(평시조)

성격 - 영매가(詠梅歌)

표현 - 의인법, 영탄법, 설의법

주제 - 매화의 예찬

▶ 작품 해설

헌종(憲宗) 6년(1840) 겨울, 스승인 박효관(朴孝寬)의 산방(山房)에  
서 벗과 기생과 더불어 금가(琴歌)로 놀 때 박효관이 가꾼 매화가 안상  
(案上)에 피어 있으므로 이를 보고 지었다고 하는 '매화사(梅花詞)' 8  
수 중에 여섯째 수이다. 매화 한 가지가 피는 것을 보고 대자연의 섭리  
와 우주의 질서를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매화사'의 두 수는 다음과 같다.

<둘째 수>

어리고 성근 梅花(매화) 너를 맞지 아녜더니,

눈 期約(기약) 能(능)히 직혀 두세 송이 뿔었구나.

燭(촉) 줍고 갖가지 스랑할 제 暗香(암향)쫓추 浮動(부동)터라.

[전문 풀이]

연약하고 영성한 가지이기에 여찌 꽃을 피울까 하고 맞지 아니하였더  
니

눈 올 때 피겠다고 한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촛불 잡고 너를 가까이 완상(玩賞)할 때 그윽한 향기조차 떠도는구  
나.

<셋째 수>

氷姿玉質(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香氣(향기) 노아 黃昏月(황혼월)을 期約(기약) 하니,

아마도 雅致高節(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흐노라.

[시어풀이]

氷姿玉質(빙자옥질) : 얼음 같은 모습에 구슬 같은 바탕

노아 : 놀아

黃昏月(황혼월) : 황혼에 떠오른 어스름한 달

雅致高節(아치고절) : 고상하게 풍류를 즐기는 높은 절개

<참고> 매화사 전체 8수

梅影(매영)이 부드친 窓(창)에 玉人金鈿(옥인금차) 비겨서져,

二三 白髮翁(이삼 백발옹)은 거문고와 노리рода.

이윽고 蠶(잔)드러 勸(권)하랄져 달이 또한 오르더라.

어리고 성근 梅花(매화) 너를 맞지 아녜더니

눈 期約(기약) 能(능)히 직혀 두세 송이 뿔었구나.

燭(촉) 줍고 갖가지 스랑할제 暗香(암향)쫓추 浮動(부동)터라.

氷姿玉質(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香氣(향기) 노아 黃昏月(황혼월)을 期約(기약) 하니

아마도 雅致高節(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눈으로 期約(기약)더니 네 果然(과연) 뛰었구나.  
 黃昏(황혼)에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거거다.  
 清香(청향)이 薰(잔)에 씻스니 醉(취)코 놀녀 허노라.

黃昏(황혼)의 돛은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었더니.  
 闇裡(암리)에 죽든 꽃치 향기(香氣) 노아 맞는고야.  
 너 었지 梅月(매월)이 벗 되는 줄 몰났던고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딪치니,  
 찬 氣運(기운) 식여 드러 죽든 梅花(매화)를 侵擄(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鶴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나.

저 건너 羅浮山(나부산) 눈 속에 걸여 옷쪽 울통불통 광덕 등걸야.  
 네 무수 힘으로 柯枝(가지) 돛쳐 곧조츄 저리 뛰었는다.  
 아모리 석은 빅 半(반)만 남아슬망정 봄 뜻줄 어이하리오.

東閣(동각)에 숨은 꽃치 躑躅(적축)인가 杜鵑花(두견화)인가.  
 乾坤(건곤)이 눈이 여늘 제 었지 敢(감)히 뛰리.  
 알괘라 白雪陽春(백설양춘)은 梅花(매화)받게 뉘 이시리.  
 <금옥총부(金玉叢部)>

(3-14) 청산도 절로절로

작자 미상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山(산) 절로 水(수)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中(중)에 절로 卍란 몸이 늙기도 절로 훌이라.  
 <해동가요>

[시어, 시구 풀이]  
 靑山(청산) : 푸른 산  
 절로절로 : 자연 상태 그대로. 저절로  
 綠水(녹수) : 맑은 물  
 山水間(산수간)에 : 자연 속에  
 절로 卍란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란  
 훌이라 : 하리라

[전문 풀이]  
 푸른 산도 저절로 된 것이며, 맑은 물도 저절로 된 것이다.  
 이처럼 산과 물이 자연 그대로이니 그 속에서 자란 나도 역시 자연 그대로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몸이니, 이제 늙는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율격 - 3(4)4조. 4음보  
 성격 - 자연 순응적  
 표현 - 반복법. 대구법  
 제재 - 자연의 순리  
 주제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조화로운 삶

▶ 작품 해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동양의 전통적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는 일이 없는 정신적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조는 ‘ㄹ’ 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유음(流音)으로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쾌한 리듬을 창출하고 있으며 시의 주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표현의 묘를 획득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의 순수시파였던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에서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그 자체를 물이 흘러가는 듯한 순조로움을 느끼게 한다.

동양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도가(道家)의 무위사상(無爲思想), 즉 자연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人爲)를 가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그런 삶을 영위하자면 마음이 부드럽고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느낌이 시행의 ‘절로절로’에서 배어 나온다.

참고로, 이 작품의 지은이가 송시열(宋時烈) 또는 김인후(金麟厚)로 되어 있는 문헌도 있다.

(3-15) 거문고 타자 하니

송계연월옹(松桂烟月翁)

거문고 타자 하니 손이 아파 어렵거늘,  
 北窓松陰(북창 송음)이 줄을 먼저 거러두고,  
 바람의 제 우는 소리 이거시야 듣기 묘타.  
 <고금가곡>

[시어, 시구 풀이]  
 타자 하니 : 연주하려 하니  
 아파 : 아파  
 北窓松陰(북창 송음) : 북쪽 창 밖의 소나무 그늘  
 먼저 : 먼저  
 거러두고 : 걸어 두고  
 바람의 : 바람에  
 제 우는 소리 : 저절로 우는 소리  
 듣기 묘타 : 듣기 좋다

[전문 풀이]  
 거문고를 연주하려 하니 손이 아파서 어렵거늘,  
 북쪽 창 밖의 소나무 그늘에 줄을 얹어 걸어 두니,  
 바람에 저절로 우는 거문고 소리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송계연월옹(松桂烟月翁 ?-?) 성명과 연대 미상의 인물로서 시조집 <고금가곡(古今歌曲)>의 편찬자임. 권말에 ‘갑신춘(甲申春), 송계연월옹(松桂烟月翁)’이라고 적혀 있는데 ‘甲申’도 어느 ‘갑신’인지 알 수 없음. 다만 그의 자작 시조 14수의 내용으로 보아 초년에 벼슬 길에 올라 출세하기도 했으나, 그 후 전원에 은거하여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음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율격 - 3(4)4조. 4음보  
 성격 - 자연 친화적  
 제재 - 바람 소리  
 주제 - 운치 있는 자연의 소리

▶ 작품 해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거문고는 손이 아파 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바람에 저절로 우는 소리가 더 듣기 좋다고 하는 말은, 지은이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운치 있는 아름다움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의 이러한 견지(見地)에서 우리 선인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6)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김천택(金天澤)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 승지(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  
날다려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해동가요>

[시어, 시구 풀이]

백구(白鷗) : 갈매기

명구 승지(名區勝地) :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

게 : 거기에

[전문 풀이]

갈매기야, 말 물어 보자. (너를 해치지 않으니) 놀라지 마라.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을 어디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에 가서 함께 놀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천택(金天澤, 연대 미상) 호는 남파(南坡).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1728년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을 편찬하였으며, 김수장(金壽長)과 함께 '경정산 가단(敬亭山 歌壇)'을 결성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해동가요(海東歌謠)'에 많은 시조 작품이 전하고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

표현 - 의인법

제재 - 갈매기

주제 - 자연애(自然愛). 갈매기와 함께 승지를 보고자 함

▶ 작품 해설

갈매기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명구승지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는 이 세상의 명승지를 다 관광하고 싶은 심정을 말한 것이다. '너와 게 가 놀리라.'에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시적 자아의 정서를 알 수 있다.

(3-17)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김수장(金壽長)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벗 업시 혼즈 안즈  
平調(평조) 한 님히 白雲(백운)이 절로 존다.  
언의 뉘 이 죠흔 뜻을 알 리 잇다 ㅎ리오.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초암(草庵) : 초가 암자

평조(平調) : 음계의 명칭. 시조 창법의 하나로서 심한 높낮이가 없이 평화스럽고 낮은 곡조임

한닙이 : 대엽(大葉)에. '한닙'은 곡조 이름인 대엽을 뜻함  
언의 뉘 : 어느 누가

언의 뉘 이 죠흔 뜻을 알 리 잇다 ㅎ리오. :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리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 좋은 뜻'이란 자연의 풍경과 시조의 곡조가 어울린 흥취를 말한다. 작자의 가객(歌客)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전문 풀이]

초암이 적적하고 고요한데 친구 하나 없이 앉아서  
나직한 곡조로 대엽(곡조 이름) 가락을 읊으니 흰 구름이 절로 조는 것 같구나.

어느 누가 혼자 즐기는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하겠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수장(金壽長, 1690-?) 호는 노가재(老歌齋). 숙종 때 병조(兵曹) 서리(書吏)를 지냈다. 시조와 노래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김천택과 더불어 당대 쌍벽을 이룬 가인으로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였다. 종래의 평시조와는 달리 민중들의 생활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려 내었고, 치밀한 상상력으로 폭넓은 역량을 작품에 담고 있다. 작품으로는 사실적인 서경시를 읊은 것이 많으며, <해동가요>에 117수의 시조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한정가(閑情歌)

표현 - 의인법, 설의법

제재 - 평조 한 님

주제 - 풍류를 즐기는 그윽한 경지.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

▶ 작품 해설

세속을 떠나 조용한 초가에 홀로 문혀 거문고를 타고 풍류를 즐기며 사는 그윽한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무대는 적료한 초암이고, 연주자는 나 혼자뿐인 독주이며, 곡조는 평조 대엽 즉흥곡인데, 청중은 대자연, 구름은 그 중의 한 관객으로 나직하고 화평스런 곡조에 즐기고 있다. 진실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3-18) 추강에 밤이 드니

월산 대군(月山大君)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무심)흔 들빛만 싯고 빈 벵 저어 오노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秋江(추강) : 가을철의 강

드니 : 으스스하여지니

츠노미라 : 차구나.

드리치니 : 드리우니

무심(無心)한 : 욕심이 없는. 사심(邪心)이 없는

저어 : 노를 저어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낙시에는 관심이 없고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에 정신이 팔려 버린 몰아(沒我)의 경지를 노래하였다.

無心(무심)흔 들빛만 싯고 빈 벵 저어 오노미라. : 세속의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허심탄회한 심정을 '무심한', '달빛만 실은 빈 배'란 표현으로 형상화하였다.

[전문 풀이]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구나.

낙시 들이니 고기가 아니 무는구나.  
무상한(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월산대군(月山大君, 1454-1488) 본명 이정(李婷). 성종(成宗)의 친형으로 서책과 산수를 가까이하고 풍류를 즐겼음. 저서에 <풍월정잡> 20권이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낭만적, 풍류적, 전원적, 한정가(閑情歌), 탈속적(脫俗的)
- 표현 - 영탄법
- 제재 - 가을 달밤, 낙시질
- 주제 -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 작품 해설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선명하게 제시한, 대표적인 '강호 한정가(江湖閑情歌)'이다. 각운(脚韻)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을 강의 밤 경치와 달빛 아래 낙시를 드리우고 있는 정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작가의 유희자적하는 삶의 정신을 달빛만 가득 싣고 빈 배(역설적인 표현 - 무엇을 가득 실었는데 비었다는 의미로 보아서)로 돌아오는 정경에서 느낄 수 있다.

○ 4 다양한 삶 ○

(4-1)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작자 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로 삼아 감상다가,  
가다가 한가온대 쪽 근처지거늘 皓齒丹脣(호치단순)으로  
흥썰며 감썰며 纖纖玉手(섬섬옥수)를 두 곳 마조 자바  
바박여 니으리라 저 모시를.  
엇더타, 이 人生(인생) 곳처갈 제 저 모시쳐로 니으리  
라.  
  
<가곡원류>

[시어, 시구 풀이]

- 두로삼아 : 손바닥을 바깥편으로 밀면서 삼는 것
- 감상다가 : 손바닥을 자기 편으로 당기면서 삼는 것
- 호치단순(皓齒丹脣) : 흰 이와 붉은 입술. 곧 미인을 말함
- 흥썰며 : 흥뻑 뻑뻑
- 감썰며 : 이로 감아 뻑뻑
-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늘고 흰 여자의 손

[전문 풀이]

모시를 이리저리 손바닥으로 비비어 꼬아서 잇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거늘 흰 이와 붉은 입술로 흥뻑 뻑뻑 이로 감아  
뻑뻑 가늘고 흰 손으로 두 끝을 마주 잡아서 바비적거리어 이으리라 저  
모시를.  
어쩌다, 나의 삶이 끝나갈 때 나도 저 모시처럼 이으리라.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연대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표현 - 열거법. 도치법
- 제재 - 길쌈
- 주제 - 오래 살고 싶은 소망

▶ 작품 해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장수(長壽)에 대한 소망을, 한없이 이어지는 실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은이는 길쌈을 하는 여성으로서, 유한한 사람의 목숨이 저 실처럼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적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 있어서 공통적인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주제로 삼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이야말로 진솔하고 직선적인 평민들의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한 노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2) 가마귀 빠호는 골에

정몽주의 어머니

가마귀 빠호는 골에 白鷺(백로) | 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출 새오나니.  
淸江(청강)에 줄이 시슨 몸을 더러일까 흐노라.  
  
<남훈태평가>

[시어, 시구 풀이]

- 빠호는 : 싸우는
- 골에 : 골짜기에
- 白鷺(백로) | 야 : 해오라기야
- 흰빛출 : 흰빛을
- 새오나니 : 시샘하나니. 시기하나니
- 淸江(청강) : 맑은 강(물)
- 줄이 : 깨끗이
- 시슨 : 씻은
- 더러일까 : 더럽힐까

[전문 풀이]

가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염려스럽구나.

[핵심 정리]

- 지은이 - 정몽주의 어머니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 율격 - 3(4)4조. 4음보
- 성격 - 교훈적
- 제재 - 가마귀와 백로
- 주제 -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함

▶ 작품 해설

포은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가던 날(저녁 무렵), 팔손이 가까운 그의 노모(老母)가 간방의 꿈이 흥하니 가지 말라고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들을 말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한다. 정몽주는 결국 어머니의 말쑤를 듣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정몽주의 노모가 타계한 후 선죽교 옆에 그 노모의 비석을 세웠는데, 기이하게도 그 비석은 언제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의 횡사를 서러워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 '백로'는 '정몽주'를 '가마귀'는 '이성계 일파'를 뜻한다.

이희령(李希齡)의 <약파만록(藥坡漫錄)>에 이와 비슷한 한역이 있어 서 이 시조를 연산군 때의 김정구가 지었다고 보기도 한다.

(4-3) 일신(一身)이 사자 훈이

작자 미상

一身(일신)이 사자 훈이 물썩 겨워 못 견딜썩.  
 皮(피)스겨 꺾튼 갈랑니 보리알 꺾튼 슈통니 줄인니  
 꺾 쥘니 쥘 벼룩 굴근 벼룩 강벼룩 倭(왜)벼룩 기는 농  
 썩는 농에 琵琶(비파) 꺾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 꺾튼  
 등에아비 갈짜귀 삼의약이 쉰 박희 높은 박희 바금이 거  
 절이 불이 썩죽한 목의 달리 기다흔 목의 야윈 목의 슬진  
 목의 글임에 썩룩이 晝夜(주야)로 빈 썩 업시 물건이 썩  
 건이 썩건이 썩건이 甚(심)한 唐(당)빌리 예서 열여왜라.  
 그 中(중)에 참아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 더위  
 에 쉬꼭린가 ㅎ노라.

<해동가요>

- [시어, 시구 풀이]
- 물썩 : 무는 것
- 피(皮)스겨 : 돌피의 껍질
- 갈랑니 : 작은 이
- 슈통니 : 살찐 이
- 줄인니 : 굵주린 이
- 꺾 쥘니 : 막 알에서 깨어난 이
- 비파(琵琶)꺾튼 : 비파같이 넘적한
- 사령(使令) :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등에아비 : 등에
- 갈짜귀 : 각다귀(모기의 일종)
- 삼의약이 : 사마귀. 미안미재비
- 썩 박희 : 하얀 바퀴벌레
- 높은 박희 : 누런 바퀴벌레
- 글임에 : 그리마(절족 동물)
- 물건이 : 물기도 하고
- 썩건이 : 썩기도 하고
- 썩건이 : 빨기도 하고
- 썩건이 : 뜯기도 하고
- 당(唐)빌리 : 당비루(피부병의 일종)

[전문 풀이]

이내 몸이 살아가고자 하니 무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피의 껍질 같은 작은 이, 보리알같이 크고 살찐 이, 굵주린 이, 막  
 알에서 깨어난 이, 작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어다니는  
 농, 썩는 농에 비파같이 넘적한 빈대 새끼, 사령 같은 등에 각다귀, 사  
 마귀, 하얀 바퀴벌레, 누런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찐 모기, 그리마, 뾰룩이, 밤  
 낮으로 쉴새없이 물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심  
 한 당비루 여기서 어렵도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뉴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ㅎ노라.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연대 - 미상
- 갈래 - 사실시조
- 성격 - 풍자적
- 표현 - 열거법
- 제재 - 물것
- 주제 - 세상살이의 어려움

▶ 작품 해설

사람을 괴롭히는 ‘물것’ 이 많아서 살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것’ 은 단순히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 피를 빨아 먹는 벌레의 총칭’ 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백성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노래의 핵심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표현상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중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거를 통한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물것’ 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열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숨가쁘게 엮어 나가는 익살스런 말투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사실시조가 아니고는 보여 줄 수 없는 묘미를 흠뻑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4-4)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김수장(金壽長)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松鵝(송골)꺾도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  
 裡(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갖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  
 오리도 갖고 ㅈ히 퍽 안즌 쇼로기도 갖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데.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스랑인이 ㅈ一色(개일색)인가  
 ㅎ노라.

<해동가요>

- [시어, 시구 풀이]
- 갓나희 : 여인들
- 저비 : 제비
- 百花園裡(백화원리) :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 안
- 綠水波瀾(녹수파란) : 푸른 물결. 푸른 파도
- 비오리 :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
- ㅈ히 : 땅에
- 쇼로기 : 솔개
- 석은 등걸 : 썩은 등걸
- 스랑인이 : 사랑받으니
- ㅈ一色(개일색) : 다 뛰어난 미인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 계집아이 또는 여인들이 여러 계층이더라는 뜻. 이런 여성관은 현모양처라는 유교적 세계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조선 후기의 세계관이 반영된 소산이다. 특히 중장에서 이런 전제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여, 사실 시조가 정형성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스러운 내용과 형식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려도 다 각각 남의 스랑인이 ㅈ一色(개일색)인가 ㅎ노라. : 그래도 각각 임들로부터 사랑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뛰어난 미인들이다. 우리 문학사에 등장한 ‘임’ 은 대개 부재(不在)의 임이나 여기의 임은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일찍이 우리 문학사에 등장한 적이 없는 특이한 임이다.

[전문 풀이]

계집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얹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핀 뜰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크고 작은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 같기도 하고, 땅에 얹은 소리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수장(金壽長, 1690-?) 호는 노가재(老歌齋). 숙종 때 병조(兵曹) 서리(書吏)를 지냈다. 시조와 노래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김천택과 더불어 당대 쌍벽을 이룬 가인으로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였다. 종래의 평시조와는 달리 민중들의 생활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려 내었고, 치밀한 상상력으로 폭넓은 역량을 작품에 담고 있다. 작품으로는 사실적인 서경시를 읊은 것이 많으며, <해동가요>에 117수의 시조가 전한다.

- 갈래 - 사실시조
- 성격 - 풍자가. 해학가
- 표현 - 직유법, 열거법, 반복법
- 제재 - 여인들
- 주제 - 각기 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 여인들

▶ 작품 해설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중장에서는 여인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비유한 뒤, 종장에서는 그 다양한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임에게는 각각 가장 사랑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일색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일찍이 우리 문학사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애정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4-5)功名(공명)을 즐겨 마라

김삼헌(金三賢)

功名(공명)을 즐겨 마라 榮辱(영욕)이 半(반)이로다.  
富貴(부귀)를 貪(탐)치 마라 危機(위기)를 瞞(만)느니라.  
우리는 一身이 閑暇(한가)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

<청구영언>

[전문 풀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영예와 치욕이 반반이로다. 부귀를 탐하지 마라. 위기를 맞게 되느니라. 우리는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지내니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 성격 - 경세적(警世的), 교훈적
- 표현 - 대구법
- 주제 - 야인(野人)으로서 한가하게 사는 즐거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즐거움

▶ 작품 해설

부귀와 공명 대신 자연에 묻혀 유희자적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가객(歌客)들의 의식 세계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영광과 욕됨이 교차하는 벼슬길이나 위기가 뒤따르는 부귀를 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두려울 것 없이 한가히 살 수 있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택하겠다는 의식은 시조 문학에 나타나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4-6) 노래 삼긴 사름

신 흥(申興)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듯든가  
眞實(진실)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진본 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 삼긴 : 만든
- 하도할샤 : 많기도 많구나
- 닐러 다 못닐러 :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자신의 생각이 나 마음의 병을 겉으로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심정을 의미한다.
- 푸듯든가 : 풀었던가
- 풀릴거시면은 : (근심과 걱정이 노래로) 풀리는 것이라면

[전문 풀이]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근심과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 하여 (노래로) 풀었던 말인가? 진실로 풀린 것이면 나도 불러 보고 싶구나.

[핵심 정리]

- 지은이 - 신흥(申興, 1566- 1628) 조선 인조 때의 학자. 문신. 호는 상촌(象村). 이정구, 장유, 이식 등과 함께 한문 사대가(漢文四大家)로 일컬어졌으며, 정주학자(程朱學者)로도 유명하다. 저서로는 <상촌집> 60권 20책이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영물가(詠物歌)
- 표현 - 연쇄법
- 제재 - 노래
- 주제 -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 보고자 하는 마음

▶ 작품 해설

‘신흥’의 시조는 우리 삶에서 ‘노래’의 역할을 잘 드러냈다. 살면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인 시름을 그냥 말로는 풀 수 없어서 등장한 것이 노래[詩]라는 것이다. 어지러운 당쟁과 광해군의 난정(亂政) 속에서 삼공(三公)의 벼슬을 지낸 작자는,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체득했을 것이다. 작자는 그런 벼슬을 내던지고 자연으로 돌아와 자연을 사랑하고 술을 마시면서 세속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그래서 노래로써 그것을 풀 수 있다면 나도 불러 보겠다고 한 것이다.

(4-7) 논 밭 갈아 기움 매고

지은이 미상

논 밭 갈아 기움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매고  
넋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려매고 무림 산중  
(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숲을 뵈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숙 부시고 공방대를 툭툭 떨어 뉘담배 띄워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청구영언' 에서 >

[시어, 시구 풀이]  
 기음 : 김. 눈발에 난 잡풀  
 뵈장방이 : 뵈장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오는 짧은 남자용 흠바지  
 다임 : 대님. 바짓가랑이의 발회목 부분을 매는 끈  
 신들메고 : 신들메하고. '들메다' 는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 맨다는 뜻이며 그 끈을 '들메' 또는 '들메끈' 이라 한다.  
 버려 : 날카롭게 갈아  
 삭다리 : 삭정이. 산 나무에 붙은 죽은 가지  
 버히거니 : 베거니  
 도슭 : 도시락  
 부시고 : 다 비우고  
 저른 소래 : 짧은 소리  
 낫 갈아 허리에 차고 - 코노래 조오다가(중장 전체) : 하층 농민의  
 생활상을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석양이 재 넘어갈 제 - 어이 같고 하더라. : 석양 무렵 나무를 해  
 오는 농민들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풍류와 더불어 삶의  
 여유를 보여 주는 서민의 진솔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전문 풀이]  
 눈 발 갈아 김매고 뵈장방이 대님 쳐 신들메고(신을 벗어지지 않게  
 하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둘러 메고, 울창한 산 속에 들어  
 가서, 삭정이 마른 쇠를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 받쳐 놓  
 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공방대를 툭툭 털어 앞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즐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  
 이 같고 하더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실시조  
 성격 - 한정가(閑情歌)  
 표현 - 열거법  
 제재 - 농사일  
 주제 -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

▶ 작품 해설

직업적인 가객들이 격조 높은 가곡을 지키려고 하는 데 빛대어서 지  
 었음인지, 눈발 갈아 기음 매고 뵈장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만첩 정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저  
 른 소리를 한다고 한 나무꾼의 노래는 경상도에서 어사용이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하층 농민의 생활에서 우러나온 사실이 이렇게까지 생동  
 감 있게 수용된 예는 다시 찾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선인들은 시조의 정형성 속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  
 려 보였다. 조선 후기를 지나 그 의미는 많이 달라졌지만, 단형의 틀 속  
 에 작자의 다양한 문학 체험을 드러내 보이는 본래의 모습은 변하지 않  
 았다. 이렇게 장구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조가 현실  
 에 대해 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시대와 삶의 형태가 변하면서, 시조 자  
 체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조의 포용성 때문에 다양한  
 작가군(作家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4-8) 뉘프락 나즈락 혀머

안민영(安玟英)

뉘프락 나즈락 혀머 멀기와 갓갑기와  
 모지락 동그락 혀머 길기와 저르기와

평생(平生)을 이리 하였시니 무삼 근심 잇시리  
 <가곡원류(歌曲源流)>

[전문 풀이]  
 높다 낮다 멀다 가깝다  
 모나다 동글다 길다 짧다  
 평생을 이리하였으니 무슨 근심 있으리오.

[핵심 정리]  
 지은이 - 안민영(安玟英, 1816- ?) 조선 고종 때의 가인(歌人). 호  
 는 주옹(周翁). 박효관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  
 류>(1876년)를 엮었다. 시조집 '금옥총부(金玉叢部)', 저서로 '주옹  
 만록(周翁漫錄)' 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교훈적  
 표현 - 대구법, 대조법, 반복법  
 주제 - 달관의 경지.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

▶ 작품 해설

두 가지 상태의 대조(즉,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 모나고 동글, 길  
 고 가까움)가 초장과 중장에 걸쳐 4회 반복되면서 인생의 진리가 나타나  
 고 있다.  
 모가 나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즉 인생을 달관하여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두 가지 동작이나 상태의 대조와 반복으로 인생  
 의 오묘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4-9)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자 미상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  
 後行(전행 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  
 足(이족), 淸醬(청장)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혀렘은.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황화 : 잡화(雜貨). 팔려고 내놓은 물건  
 무서시라 : 무엇이라  
 웨는다 : 외치느냐?  
 외골내육(外骨內肉) : '게' 를 일컬음. 겉은 딱딱하고 속은 연한  
 살이 있음을 비유  
 소(小)아리 : 작은 다리. '아리' 는 '다리' 의 옛말  
 청장(淸醬) :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 뱃속에 들어 있는 푸른 빛깔  
 의 장  
 으스스 : 게를 입에 넣고 씹을 때 나는 의성어 표현  
 하 거북이 : 너무 거북하게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혀렘은. : 장수야, 너무 거  
 북하게(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게젯 사라고 하려무나. 장수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빈정거리고 있다.

[전문 풀이]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젓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가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젓 사오.

장수야, 그렇게 장황하게(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우나.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적
- 표현 - 대화체, 돈호법
- 제재 - 동난지이(게젓)
- 주제 - 서민들의 상거래(商去來) 장면

▶ 작품 해설

시정(市井)의 장사꾼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상거래(商去來)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서민들의 생활 용어가 그대로 시어로 쓰이고 있다.

서민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는 이 노래는 게 장수와의 대화를 통한 상거래의 내용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종장에서 '게'를 묘사한 대목은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으로 사설시조의 미의식인 해학미(諧謔美) 내지는 희극미(喜劇美)를 느끼게 하며, '아스스하는'과 같은 감각적 표현은 한결 현실감을 더해 준다. 또한 종장에서 '장수야, 하 거북이 웬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이란 표현을 통해, '게젓'이란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를 쓰는 데 대한 반정거름을 살펴볼 수 있다.

(4-10) 두터비 꾀리를 물고

지은이 미상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산(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썩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썩여 내뺏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늘넌 뽕식만정 에혈질 번하과라.  
 <진본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 두터비 : 두꺼비
- 두힘 : 두엄
- 치드라 : 올라가
- 백송골(白松骨) : 날랜 매의 일종. 흰 송골매
- 내뺏다가 : 앞으로 뛰어 나가다가
- 잣바지거고 : 자빠졌구나
- 뽕식만정 : 나이엇기 망정이지(다행이지)
- 에혈질 : 멍들. 어혈(瘀血)이 질
-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두꺼비가 파리를 잡음. 양반의 허세(虛勢)
- 것년 산(山) 바라보니 -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백송골에 놀람. 양반들의 무능(無能)
- 모쳐라 - 에혈질 번하과라. : 두꺼비의 변명. 양반들의 비굴성(卑屈性)

[전문 풀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팔썩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미터면 다쳐서 멍들 뻘했구나.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표현 - 상징적 암유. 의인법. 풍자적, 희화적(戲畵的)
- 성격 - 풍자시(諷刺詩)
- 주제 -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 작품 해설

사설시조가 대두되어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하던 17~18세기는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것과 더불어 민중 의식이 또한 강하게 싹트기 시작하던 때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문학을 통해 형상화되기에 이르렀고, 그 형상화의 수법은 풍자(諷刺)였으며, 그 대표적인 장르 형태가 사설시조였다. 이 작품은 그러한 성격이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두터바 꾀라 백송골'의 대응 관계를 통해 당시 위정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강식(弱肉強食)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한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관찰자 시점을 택하고 있다.

당시 시대상과 견주어 본다면, 두꺼비는 양반 계층, 파리는 힘 없고 나약한 평민 계층, 백송골은 외세(外勢)라는 도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 없는 백성을 괴롭히다가 강한 외세 앞에서 비굴해지는 세대를 익살로 풍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우의적(寓意的)이면서 풍자적이며 희화적(戲畵的)이라 할 수 있다.

(4-11)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박인로(朴仁老)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示由子(유자) | 안이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없슬식 글노 설워 하느다.  
 <노계집>

[시어, 시구 풀이]

- 반중(盤中) : 소반 가운데. 상 위의
- 조홍(早紅)감 : 일찍 빨갈게 익은 감. 조홍시(早紅柿)
- 반기리 : 반길 사람이. '어버이'를 말함

[전문 풀이]

소반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갈 마음이 있지만은  
 품어 가도 반가워해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를 서러워합니다.

[핵심 정리]

지은이 - 박인로(朴仁老, 1561-1642) 조선 시대 무신. 호는 노계(蘆溪). 또는 무하옹(無何翁). 임진왜란 때에는 수군에 종군하였고, 39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만호에 이르렀으나, 후에 벼슬을 사직하고 독서와 시적(詩作)에 전념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안빈낙도하는 도학사상, 우국지정이 넘치는 충효 사상, 산수 명승을 즐기는 자연에 사상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송강과 함께 가사 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며, 가사 7편과 '오륜가' 등 시조 72수가 <노계집(蘆溪集)>에 전한다.

- 갈래 - 평시조
- 성격 - 사친가(思親歌)
- 표현 - 인용법
- 제재 - 조홍감
- 주제 - 효심(孝心)

▶ 작품 해설

한음(漢陰) 이덕형으로부터 감을 대접받고 느낀 바 있어 지었다는 이 작품은 ‘조홍시가(早紅柿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효(孝)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귀한 음식을 대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께 갖다 드렸으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드리지 못함을 서러워한다는 것은, 평소에 효심이 두텁지 않고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노계(蘆溪)가 감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서러워하는 것은 그의 충효로 일관된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심정을, 글을 풀어 가려 했던 옛 중국 사람의 고사(육적회교(陸績懷橘) 고사)와 비교한 것에서도 유학자다운 취향이 느껴진다.

그 고사는 다음과 같다.

중국 삼국 시대 오(吳)에 육적(陸績)이라는 자가 있었다. 여섯 살 때, 원술(袁術)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가 내놓은 귤 중에서 세 개를 몰래 품 속에 넣었다가 하직 인사를 할 때 그 귤이 굴러 나와 발각이 되었다. 그 때 원술이 사연을 물으니, 육적은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려 하였다 하므로, 모두 그의 효심에 감격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회교 고사(懷橘故事) 또는 육적 회교(陸績懷橘)이라고 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의 뜻’으로 쓰인다.

(4-12) 붉가버스 兒孩(아해) | 들리

이정신(李廷薰)

붉가버스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치(천)으로 往來(왕래)하며,  
 붉가숭아 붉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모나니 붉가숭이 로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거미줄 테 : 거미줄을 붙인 잠자리 채  
 붉가숭아 : 잠자리를 부르는 말  
 부모나니 : 부르는 이가. 부르는 것이  
 붉가숭아 붉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 각박한 세대의 한 면모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구절은 요즘도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을 때 흔히 부르는 노래로, 민요와 동요의 긴 생명력을 실감나게 한다.

[전문 풀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을 왔다갔다하며  
 “별거숭아, 별거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런 것인가 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정신(李廷薰, 연대 미상) 조선 영조 때의 가인(歌人). 호는 백회재(百梅齋). 여러 가집에 시조 13수(그 중 1수는 불확실)가 전한다.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풍자가

표현 - 풍자적 암유. 의인법. 대화체

주제 - 약육강식(弱肉強食)의 험난한 시대 풍자

▶ 작품 해설

‘붉가숭이(별거숭이 아이들)’가 ‘붉가숭이(고추잠자리)’를 잡

는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약육 강식(弱肉強食)의 각박한 세대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잠자리가 자기들에게 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적 상황이다. 잠자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 모두 이와 같다는 소박한 표현 속에 깊은 생활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붉가버스 兒孩(아해) | 들’과 ‘붉가숭이’는 모해하는 자를, ‘붉가숭아’는 모해 받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13) 산은 냇 산이로되

황진이(黃眞伊)

山(산)은 냇 山(산)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晝夜(주야)에 흘은이 냇 물이 이실쓰야.  
 人傑(인걸)도 물과 鬮(구)야 가고 안이 오노되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이실쓰야 : 있을 수 있겠느냐.  
 인걸(人傑) : 걸출한 인물. 여기서는 사람들  
 鬮(구)야 : 갈아서  
 오노되라 : 오는구나.

山(산)은 냇 山(산)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 정지되어 있는 산과 흐르는 물의 대조를 통하여 물의 무정함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무상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人傑(인걸)도 물과 鬮(구)야 : 여기서 인걸이 특징적인 서화담이라면 이 시조는 무정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련의 노래가 될 것이고, 인생무상을 절감하는 화자의 철학적 대상이라면 자연을 통하여 인생을 관조하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인걸은 물과 같다’고 하여 물의 유동을 통하여 인간의 무정함과 인생의 무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 풀이]

산은 옛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 물이 아니구나.  
 종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사람도 물과 갈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황진이(黃眞伊, 연대 미상) 본명은 진(眞). 기명(妓名)은 명월(明月). 조선 중종 때 송도의 명기(名妓)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서음률(詩書音律)에 능하였다. 그의 시는 여성적 정서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시 4수와 시조 6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관조적(인걸이 일반인이라면), 애상적(인걸이 화담 서경덕이라면)

제재 - 산. 물. 인걸

주제 - 인생무상

▶ 작품 해설

황진이의 시조는 평범한 일상어로 세련된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다. 단순한 자연인산과 물의 대조를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철학적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변함이 없는 산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과의 대조, 흐르는 물과 사라지는 인간과의 대조를 통하여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정인(情人)에 대한 기녀의 노래가 인생무상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확산되는 것이 돋보인다.

‘산’, ‘물’, ‘인걸’을 등장시켜 초장의 가설, 중장의 증명, 종장의 비유 및 종결의 순서로 논리를 펴 나가는 작품이다.

여기서의 '인걸' 은 어느 특정인(그녀가 사랑했다는 화담 서경덕) 이라기보다 '인생무상' 을 절감하는 지은이의 '철학적 대상'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14)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지은이 미상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른 며느리나 갑세 쳐 온 며느리나. 밤나모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양살피신 식아바님, 벗 뵈 쇠쥂긋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룬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쏘족흔신 식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퓌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윗곳 굵튼 피쥂 누는 아덜 하나 두고,  
건 밧퓌 메곳 굵튼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하시뇨고.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낫바 : 나빠. '싫어', '미워' 의 뜻  
벽 : 부엌  
빛 : 빛  
석은 : 썩은  
휘초리 : 회초리  
나니긋치 : 가느다란 가지가 난 것처럼  
양살피신 : 매서운  
되종고신 : 말라빠진  
겨룬 : 결은. 곧, 엮은  
당(唐)피 : 좋은 곡식  
가론 : 경작(耕作)한  
돌피 : 자연생 피  
아덜 : 여기서 아들은 어린 남편을 일컫는다. 이 시조에서는 궁극적으로 보잘것 없는 남편에게 원망이 집중되어 있다 하겠다.  
건 : 기름진  
메곳 : 메꽃  
빛에 바른 며느리나 - 피쥂 누는 아덜 하나 두고, :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왜곡(歪曲)된 가정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 풀이]  
시어머님 며느라기 미워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른 며느리인가, 갑세 쳐 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 난 것같이 매서우신 시어머님, 벗 뵈 쇠쥂같이 말라빠진 시어머님, 삼 년 결은(엮은) 망태에 새 송곳부리같이 뽀족하신 시누이님, 당피(좋은 곡식) 같은 밧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오이꽃 같은 피뽕 누는 아덜 하나 두고,  
기름진 밧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미워하시뇨고?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실시조  
성격 - 원부가(怨婦歌)  
표현 - 열거법  
제재 - 봉건시대 왜곡된 가정 생활

주제 - 왜곡된 가정 생활에 대한 비판

▶ 작품 해설  
이 작품에는 풍자와 해학이 한데 얽혀 있다. 시집 식구들의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 봉건적으로 왜곡된 가정 생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풍자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시조는 농촌의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며느리의 노래이다.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통해 비유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에서 사실시조가 서민 문학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다.

(4-15) 이고 진 더 늘그니

정철(鄭澈)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젊었찌니 돌히라 무거올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가.  
- 훈인가 '제16수' - <송강가사(松江歌辭)>

[시어, 시구 풀이]  
더 : 지  
젊었찌니 : 젊었더니  
설웨라커든 : 서럽다 하겠거늘  
이고 진 더 늘그니 : 늙고도,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져서 생활고에 찌들린 노인네의 모습은 애련의 정을 유발하고 있다.  
늘거도 설웨라커든 : 늙은 것만으로도 서러운 것이거든. 불가(佛家)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를 '사고(四苦)' 라고 하며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으로 간주한다.

[전문 풀이]  
이고 진 저 노인네 짐 풀어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는가?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셔서 되겠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정철(鄭澈 1536-1593) 조선 선조(宣祖) 때의 문신(文臣), 시인.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시호는 문정(文淸).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관찰사 재임 중 '관동별곡', 단가(短歌)인 '훈인가' 등을 지었다. 50세에 퇴임하여 창녕에 살면서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을 지었으며, 저서에 '송강가사' 2권 1책과 문집 11권 7책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연시조(16수)  
성격 - 교훈적  
제재 - 반백자불부대(斑白者不負戴)  
주제 - 경로(敬老)

▶ 작품 해설  
'훈인가' 는 송강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백성들을 교유(敎諭), 계몽하기 위하여 지은 총16수의 연시조.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친척 간의 우애, 이웃 간의 따뜻한 인정 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마지막 수로 송나라 신종(神宗) 때 진양(陳襄)이 지은 선거권유문(仙居勸誘文)의 반백자불부대(斑白者不負戴)를 시화하여 늙은이에 대한 애련을 나타내며 경로 사상을 일깨워 주는 노래다.  
순수한 우리말로 지어서 민중의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말을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 하여 민중을 설득하는 강한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젊은이과 늙은이와의 대조를 통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하

고 있다.

(4-16) 이련들 엇더허며

이방원(李芳遠)

이련들 엇더허며 저련들 엇더허리.  
 萬壽山(만수산) 드령츨이 열거진들 그 엇더허리.  
 우리도 이곳치 열거져 百年(백 년)까지 누리리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만수산(萬壽山) : 개성 서쪽 교외에 있는 고려 왕실의 일곱 능(陵)이 있는 산  
 드령츨이 열거진들 그 엇더허리. : 마구 뻗어난 최덕굴이 서로 엇혀진들(엇혀진 것처럼 산들)그것이 어떠하리오.

[전문 풀이]  
 이련들 어떠하겠으며 저련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최덕굴이 서로 엇혀져 있은들 어떠하리.  
 우리도 그 최처럼 엇혀서 오래도록 살아가리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방원(李芳遠, 1367~1422) 조선 태조의 다섯째 아들. 뒤 에 제 3대 태종이 되었고, 부친 이성계를 도와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조선 건국에 공이 크다.  
 갈래 - 평시조  
 연대 - 고려 말엽(1392년)  
 성격 - 회유적(懷柔的)  
 표현 - 설의법, 직유법  
 별칭 - 하여가(何如歌)  
 주제 - 정적(政敵)에 대한 회유(懷柔)

▶ **작품 해설**  
 이방원이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속셈을 떠보느라고 지은 '하여가(何如歌)'이다. 이에 대해서 정몽주는 '단심가(丹心歌)'로 응답하였다. 직설적인 말은 내비치지도 않고 느긋하다.  
 혁명 전야(前夜)에 고려의 중추적인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었다는 이 노래는 일명 '하여가(何如歌)'라고도 한다. 결국 '단심가(丹心歌)'로서 굳은 절개를 화답했던 정몽주는 이방원의 심복 조영규에게 선죽교에서 살해되고 만다. 이와 같은 사연을 가진 이 노래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으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다툼을 느끼게 한다.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는 다음과 같다.  
 이 몸이 주겨주겨 一百番(일백번) 고쳐 주겨,  
 白骨(백골)이 塵土(진토)이 되어 녀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향)흔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청구영언>

<전문 풀이>  
 내가 일백번을 다시 죽어서,  
 뼈가 티끌이 되어 너마저 있든지 없든지 하여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17) 이시럼 브디 갈싸

성종(成宗)

이시럼 브디 갈싸, 아니 가든 못 흘썩냐.

無端(무단)이 슬튼야 늑의 말을 드럿는야.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쫓을 날러라.  
 <해동가요(海東歌謠)>

[시어, 시구 풀이]  
 이시럼 : 있으려무나  
 갈싸 : 가겠느냐  
 무단(無端)이 : 아무 까닭 없이. 공연히  
 슬튼야 : 싫더냐?  
 그러도 : 그래도  
 하 : 대단히. 펍  
 애도래라 : 애달프구나  
 이시럼 브디 갈싸, 아니 가든 못 흘썩냐 : 부디 있으려무나, 굳이 가야겠느냐? 아니 갈 수는 없느냐?  
 無端(무단)이 슬튼야 늑의 말을 드럿는야. : 공연히 싫더냐? 아니면,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러느냐?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쫓을 날러라. : 그렇게 간단고만 하니, 펍 애달구나. 떠나는 이유만이라도 말하여라.

[전문 풀이]  
 있으려무나, 부디(꼭) 가겠느냐? 아니 가지는 못하겠느냐?  
 공연히 (내가) 싫어졌느냐? 남의 권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래도 (오히려) 너무 애타는구나. 가는 뜻이나 분명히 말해 보려무나.

[핵심 정리]  
 지은이 - 성종(成宗, 1457~1494) 조선 제 9대 임금. 행정 개혁과 문화 진흥의 공적이 큼  
 갈래 - 평시조  
 성격 - 회유적(懷柔的). 유교적. 군신유의(君臣有義)  
 표현 - 문답법  
 제재 - 신하의 사임(辭任)  
 주제 - 신하를 떠나 보내는 임금의 애달은 마음

▶ **작품 해설**  
 조선 성종 때 유호인(兪好仁)이라는 신하가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을 사임하고 내려가게 되자, 임금(성종)이 여러 번 만류하다가 할 수 없이 친히 주연을 베풀어 술을 권하면서 읊은 작품이다.

(4-18) 흐 손에 막딤 잡고

우탁(禹奭)

흐 손에 막딤 잡고 쫓 흐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논 白髮(백발) 막딤로 치려터니,  
 白髮(백발)이 제 몬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막딤 : 막대  
 가식 : 가시  
 치려터니 : 치려고 하였더니  
 몬져 : 먼저  
 즈름길 : 지름길. 첩경(捷徑)  
 白髮(백발)이 제 몬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찾아오는 늙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세월의 흐름은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무상감(無常感)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 풀이]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핵심 정리]

작자 - 우탁(禹倬 1263-1343) 자는 천장(天章), 역동(易東). 원종-충혜왕 때의 학자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성격 - 탄로가(嘆老歌)  
표현 - 대구법, 대조법  
내용 - 초장(막대와 가시를 잡음) 중장(백발을 막으려 함) 종장(백발을 막지 못함)  
주제 - 늙음을 탄식함

▶ 작품 해설

‘탄로가(嘆老歌)’ 2수 가운데 한 수이다. ‘늙음’이라는 추상적인 인생길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길로 전환시키고, 세월의 흐름을 가시와 막대기로 막으려는 발상이 재미있다.

인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늙어감’과 ‘죽음’ 일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불로초(不老草)를 찾아 심산유곡(深山幽谷)을 헤매이지 않았던가. 탄로가(嘆老歌)에 속하는 이 작품은 이와 같은 ‘늙어감’을, 나아가 인생무상을 달관한 경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시적 표현이 매우 참신하며 감각적이다.

세월(늙은 길)과 늙음(백발)을 구상화(具象化)한 공감감적(共感覺的) 이미지를 통해 늙음에의 안타까운 심정이 간결하고도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4-19) 한숨아 세한숨아

지은이 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 장죽 세살 장죽 들 장죽 열 장죽에 암돌적귀 수돌적귀  
빅목걸시 쭉닥 박고 크나큰 즈음쇠로 속이속이 츄  
엇는디 屏風(병풍)이라 덜걱 접고 簇子(족자) | 라 덕덕골  
말고, 네 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줌 못 드러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고모 장죽 : 고무래 장지. 자 모양의 장지  
세살 장죽 : 가는 살로 만든 장지  
들 장죽 : 들장지.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암돌적귀 : 암돌쩌귀  
빅목걸시 : 문고리를 거는 쇠  
넛바 : 나뻘. ‘싫어’, ‘미워서’의 뜻  
벽 : 부엌

[전문 풀이]

한숨아 세(가느다란) 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이상 문의 종류) 암돌쩌귀,

수돌쩌귀.(문 다는데 필요한 도구들) 배목걸새(문고리 거는 쇠) 똑닥 박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이깊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걱 접은 족자라 대대굴 마느냐?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어찌된 일인지 내가 오는 날이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갈래 - 사실시조  
성격 - 수심가(愁心歌), 해학적(諧謔的)  
표현 - 열거법  
제재 - 시름  
주제 - 그칠 줄 모르는 시름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해 뉘그러서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하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시름을 막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이란 결국 웃음을 통해서만이 극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20)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지은이 미상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빅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닥 바가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고모장지 : 고무래 들창  
세살장지 : 가는 살의 장지  
들장지 :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열장지 : 좌우로 열어 젖히게 된 장지  
암돌쩌귀 : 문설주에 박는 구멍난 돌쩌귀  
수돌쩌귀 : 문짝에 박는 돌쩌귀  
빅목걸새 : 문고리에 켜는 쇠  
잇다감 : 가끔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 가슴을 열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을 야단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창’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조나 근대시에서도 두루 사용되었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 이 내 가슴에 窓(창) 내고자. : 초장의 다급한 상황에 대하여 사실을 늘어 놓음으로써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전문 풀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문의 종류) 암돌쩌귀 수돌쩌귀(문 다는데 쓰이는 도구) 배목걸새(문고리에 켜는 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가
- 표현 - 열거법, 반복법
- 주제 - 마음 속에 쌓인 비애와 고통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평민층 작가에 의한 사실로 추정되는데, 마음 속에 쌓인 답답함을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재미있는 착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적인 사고나 착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을 기상(奇想)이라 한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꼭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서 시원스럽게 펴고 싶다는 착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다분히 해학적(諧謔的)이기도 한데,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4-21) 흥 눈 멀고 흥 다리 저는

지은이 미상

흥 눈 멀고 흥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마즈 푸리 물  
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건년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리 썬 잇거늘 가슴에  
금죽혀여 풀썩 썬다가 그 아리 도로 잣바지거고나.  
못쳐로 날닌 썰식만정 흥혀 鈍者(둔자) | 런들 어혈질  
번 흥패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 서리 마즈 : 서리 맞은
- 백송골(白松骨) : 흰 송골매
- 금죽혀여 : 끄적해서
- 잣바지거고나 : 자빠졌구나
- 못쳐로 : 아차. 말아라. 감탄사
- 썰식만정 : 나이었기 때문이지
- 둔자(鈍者) : 아둔한 사람. 날래지 못한 사람
- 건년산 바라보니 - 아리 도로 잣바지거고나 : 건년산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잇거늘, 가슴이 끄적하여 풀썩 썬다가 그 아래 도로 자빠졌구나. 힘없는 자(파리)에게는 강하면서도, 강한 자(송골매)에게는 맥을 못 추는 비굴한 양반(두꺼비)의 희화화된 모습이 잘 드러난다.
- 못쳐로 날닌 - 어혈질 번흥패라. : 아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날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명이 들어 피가 맺힐 뻔하였구나.

[전문 풀이]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서리맞은 파리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년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끄적하여 풀썩 썬다가 그 아래 도로 자빠지겠구나.  
다행히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행여 둔한 농이런들 피멍들 뻔했도다.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풍자시(諷刺詩), 우의적(寓意的), 희화적(戲畫的)
- 표현 - 상징적 암유, 의인법
- 제재 - 두꺼비
- 주제 -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 작품 해설

두꺼비, 백송골, 파리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강식(弱肉強食)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한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당시 시대상에 견주어 본다면, 두꺼비는 양반 계층, 파리는 힘없고 나약한 평민 계층, 백송골은 강한 외세(外勢)라는 도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강한 외세 앞에서 비굴해지는 세태를 익살로 풍자한 것이다. 결국 힘있는 자에게 굽히고 힘없는 자 위에 군림하면서 잇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수령이나 아전들을 비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우의적이고 풍자적이고, 희화적이라 할 수 있다.

(4-22) 개야미 불개야미

지은이 미상

개야미 불개야미 준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침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혀 들고  
北海(북해)를 건너듯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흥여도 님이 짐작호쇼  
셔.  
<청구영언>

[전문 풀이]

개미, 불개미,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피부병이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난 불개미가, 광릉 생고개를 넘어 들어가서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겨 들고, 북해를 건너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한다 해도 임께서 짐작해 주십시오.

[핵심 정리]

- 지은이 - 미상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적, 교훈적, 과장적
- 표현 - 과장법, 둔호법
- 제재 - 사람들의 모함
- 주제 - 참언(讒言)- 남을 헐뜯어 없애는 것을 있다 하여 고해 바침)에 대한 경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

▶ 작품 해설

사람들의 모함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인지, 그러한 일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구체적 일례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 없음을 희화적(戲畫的)으로 비유한 노래이다.

이 노래의 핵심은 중장에 있다. ‘온 놈’의 ‘온 말’은 다른 사람의 참언(讒言)을 뜻하는 것으로, 중장에서 사물을 극단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온 놈’의 ‘온 말’이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초장(初章)과 중장(中章)에서는 중장(終章)에 백 사람이 백 가지 이야기를 하여도 님께서 짐작하여 헤아리시라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것

이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님' 은 임금으로 가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종장의 문구(文句)는 사실 시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4-23) 고을사 저 꽃이여

안민영(安玟英)

고을사 저 꽃이여 반(半)만 여윈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허여 있어  
쫓는 나뉜를 웃고 맞아 허노라.

< '금옥총부(金玉叢部)' 에서>

[시어, 시구 풀이]

고을사 : 고품나. 고을시고

여윈 : 시든. 마른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허여 있어 : 꽃의 만발과 떨어짐 사이에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 풀이]

고을시고 저 꽃이여! 반만 시든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언제나 그 정도만 하고 있어  
봄바람에 향기 쫓는 나뉜를 웃고 맞이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안민영(安玟英, 1816-?) 조선 고종 때의 가인(歌人). 호는 주옹(周翁). 박효관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류>(1876년)를 엮었다. 시조집 '금옥총부(金玉叢部)', 저서로 '주옹만록(周翁漫錄)' 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찬미가(讚美歌)

표현 - 의인법

제재 - 꽃

주제 - 꽃의 아름다움 예찬

▶ 작품 해설

만개(滿開)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반쯤 시든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특이한 작품이다. 무엇이든 풍족한 경우에는 고귀함을 모르다가 정작 결핍의 상황이 벌어지면 아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니 더도 덜도 말고 그 정도만 하여 봄바람에 나뉜를 기다리는 작자의 마음은 애절한 그 자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널리 알려진 또 다른 '매화사' 의 두 수는 다음과 같다.

■

박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딪치니,

찬 氣運(기운) 쇠여 드러 줌든 梅花(매화)를 侵擄(침노)한다.

다.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 쫓이야 아슬소냐.

[시어 풀이]

침노한다 : 개개거나 해치다.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다

얼우려 허인들 : 얼게 하려 한들

아슬소냐 : 빼앗을쏘냐.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핵심 정리]

성격 - 영매가(詠梅歌)

표현 - 의인법, 영탄법, 설의법

주제 - 매화의 예찬

■

氷姿玉質(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구나.

가만이 香氣(향기) 노아 黃昏月(황혼월)을 期約(기약)하니,

아마도 雅致高節(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허노라.

[시어 풀이]

氷姿玉質(빙자옥질) : 얼음 같은 모습에 구슬 같은 바탕

노아 : 놀아

黃昏月(황혼월) : 황혼에 떠오른 어스름한 달

雅致高節(아치고절) : 고상하게 풍류를 즐기는 높은 절개

[핵심 정리]

성격 : 영매가(詠梅歌)

표현 : 의인법

주제 : 매화 예찬

(4-24) 쫓은 든는 대로 덧고

위백규(魏伯珪)

쫓은 든는 대로 덧고 벗는 쫄 대로 쫄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득시 머무는고  
<위문가첩(魏門歌帖)>

[전문 풀이]

(일을 하다 보니)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벗은 쫄 대로 쫄다.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쉬면서 긴 휘파람을 멋들어지게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이 소리를 아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조선 후기의 학자. 호는 존재(存齋). 주요 저서는 <존재집(存齋集)>, <지제지(支提志)> 등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농가(農歌)

주제 - 일하는 즐거움

▶ 작품 해설

위백규(魏伯珪)의 시조는 단순히 자연을 즐길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벗어나, 땀 흘리며 일하는 생활의 터전으로 그려냄으로써 전원을 노래한 시조의 새 경지를 열고 있다.

이 시조는 여타의 시조들과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시조들 중 많은 작품들이 자연을 단순하게 즐기고 유희자적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꾸려 나가는 식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데 반해, 이 노래는 자연을 땀 흘리며 일하는 농가(農家)로서, 전원을 노래한 시조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였다 하겠다.

(4-25) 뉘라셔 가마귀를

박효관(朴孝寬)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凶(흉)타 허뉘던고.  
反哺報恩(반포 보은)이 그 아니 아름다온가.

스롭이 저 식만 못흐를 못너 슬허호노라.

<가곡원류>

[시어, 시구 풀이]

뉘라셔 : 누가

凶(흉)타 : 흉하다고

흐뉘던고 : 하였던고

反哺報恩(반포 보은) : 다 자란 까마귀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

그 : 그것이

스롭이 : 사람이

못흐를 : 못함을

못너 : 끝내

슬허호노라 : 슬퍼하노라

[전문 풀이]

누가 까마귀를 검고 불길한 새라고 하였던고.

반포 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사람들이 저 까마귀만도 못한 것을 끝내 슬퍼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박효관(朴孝寬 1800-1880) 조선 철종-고종 때의 가객. 호는 운애(雲崖). 1876년 그의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찬하였고, 풍류객들과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승평계(昇平契)'를 만들었다.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그로부터 '운애(雲崖)'라는 호를 지어 받았으며 <가곡원류>에 저작 시조 15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율격 - 3(4)4조. 4음보

성격 - 경세가(警世歌)

제재 - 반포 보은(反哺報恩)

주제 - 인간의 불효에 대한 탄식

▶ 작품 해설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반포 보은하는 까마귀에 비해 개탄한 노래이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달빛이 검을 뿐 아니라 울음소리로 흉측하여 '사망(死亡)의 전조(前兆)'로 온 세계에 알려질 만큼 흉조(凶鳥)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미가 늙으면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한다[反哺報恩]는 새로 '반포조(反哺鳥)' 또는 '효조(孝鳥)'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지은이는 불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까마귀만도 못하다고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4-26) 보리밥 풋늬물을 [漫興(만흥)]

윤선도(尹善道)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긋 움마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은 녀나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호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묘하 호노라.

<산중신곡(山中新曲)>

[시어, 시구 풀이]

풋늬물 : 풋나물

알마초 : 알맞게. 적당히

뉘를 : 산을

오다 : 온가고

우움도 : 웃음도

아녀도 : 아니하여도

몬내 묘하 : 못내 좋아. 둘다[좋아하다好]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묘하 호노라. :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隱士)의 한정(閑情)이 잘 나타나 있다.

[전문 풀이]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마음껏 놀고 있노라.

이렇게 한가로이 노닐고 있으니 그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까닭이 있겠느냐?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산이 말씀하거나 웃음을 짓지도 않건만 나는 그를 한없이 좋아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윤선도(尹善道, 1587-1671) 조선 선조-현종 때의 문신. 호는 고산(孤山). 송강 정철과 국문학사상 쌍벽을 이룬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나 속화된 자연을 시로써 승화시켰다. 작품으로는 '견희요'와 '우후요(雨後謠)', '산중신곡(山中新曲)', '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 등이 있다.

갈래 - 평시조. 연시조 '만흥(漫興)' 6수 중 일부임

성격 - 한정가(閑情歌)

제재 - 자연을 벗하는 생활

주제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님의 은혜.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隱士)의 한정(閑情)

▶ 작품 해설

'산중신곡'에 실려 있는 6수로 된 연시조 '만흥(漫興)'의 제2, 3수이다. 첫째 수는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는 데 대한 만족을, 둘째 수는 멀리 보이는 산과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지내는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인간과 교섭을 끊고 먼 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아래 작품). 문득 마음 속에 박혀 오는 산의 모습, 웅장함이며, 태연 자약함이며, 세상의 무엇보다도 미덥고 반가운 모습. 말없는 말을, 웃음 없는 웃음을 이심전심으로 느끼면서 황홀한 기쁨에 젖는다. 때로는 사람이 그림기도 하고 친구가 찾아오면 좋으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져 보지만, 이제는 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자연에 몰입되어 무아경(無我境)에 든 산같이 의연한 고산(孤山) 윤선도의 고고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참고> '만흥(漫興)' 전편의 풀이와 주제

1

山水間(산수간) 바회 아래 쭈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풀이]

산과 시내 사이 바위 아래에 움막을 지으려 하니,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마음에는 이것이 분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노라.

[주제]

분수에 맞는 생활

2  
보리밥 풋늬를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긱 몯의 슬꺨지 노니노라.  
그 나른 녀나른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4-27) 梧桐(오동)에 덧는 빗발

김상용(金尙容)

梧桐(오동)에 덧는 빗발 無心히 덧건마는  
나의 시름 하니 납납히 愁聲(수성) 이로다.  
이 後야 입 넓은 남기야 시물 줄이 이시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덧는 : 떨어지는  
덧건마는 : 떨어지지마는  
하니 : 많으니  
납납히 : 잎잎이  
수성(愁聲) : 근심의 소리

[전문 풀이]  
오동에 떨어지는 빗발은 무심히 떨어지지마는  
나의 시름 많으니 잎잎이 근심의 소리로다.  
이 후에는 잎 넓은 나무는 심지 앓을까 한다.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선원(仙源), 풍계(楓溪). 시호는 문충(文忠).  
갈래 - 평시조  
제재 - 시름 많은 삶의 현실  
주제 - 힘겹고 시름겨운 삶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작자 김상용의 힘겨웠던 삶이 배어 있다.  
인조 반정(仁祖反正)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힘들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자신의 심경을 투영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시름 많은 삶을 오동잎을 끌어들여 나타내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시조는 4음보격 3행의 형태를 가진 시가인데, 제3행의 제2음보의 양(量)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입 넓은 남기야'가 거기에 해당한다.

(4-28)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黃眞伊)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  
라.

一到滄海(일도창해) 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山(만공산) 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벽계수(碧溪水) | 야 : 푸른 시냇물아. 당시 종실(宗室)이던 벽계수(碧溪水)란 사람을 중의적(重意的)으로 표현한 말  
수이 : 쉬어. 쉽게  
일도창해(一到蒼海) 하면 :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만공산(滿空山) : 적막한 산에 가득 참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 '청산'은 영원한 자연을, '벽계수'는 덧없는 인생을, '수이 감'은 순간적인 인생의 삶을 비유적(중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一到滄海(일도창해) 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 한 번 늙거나 죽으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올 수 없으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 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 '명월'은 지은이 자신(황진이)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문 풀이]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어 감이  
어떠냐?

[핵심 정리]  
지은이 - 황진이(黃眞伊, 연대 미상) 본명은 진(眞). 기명(妓名)은 명월(明月). 조선 중종 때 송도의 명기(名妓)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서음률(詩書音律)에 능하였다. 그의 시는 여성적 정서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시 4수와 시조 6수가 전한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감상적, 낭만적  
표현 - 의인법, 중의법, 설의법, 대조법  
제재 -  
주제 -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

(4-29)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우탁(禹奭)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건듯 불고 간 되 었다.  
저근 덧 비러다가 머리 우희 불니고져,  
귀 밧퓌 히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호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어, 시구 풀이]  
춘산(春山) : 봄 동산. '청춘'을 뜻함  
건듯 : 문득. 잠깐  
간 되 : 간 곳  
저근 덧 : 잠깐. 잠시 동안  
머리 : 머리  
불니고져 : 불게 하고 싶구나  
밧퓌 : 밑에  
히묵은 : 오래 된. 여러 해 묵은  
서리 : '백발(白髮)'을 비유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건듯 불고 간 되 었다. : 거의 백발이 되고 얼마 남지 않은 머리숱을, 이른 봄의 산에 녹다 남은 눈에 비유하고 있다. '건듯 불고 간 되 었다.'는 눈을 녹인 바람의 비상성(非常性)을 의미하는 한편, 지난 날 자신의 젊음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린, 세월의 빠름에 대한 허탈감을 함축하고 있다.  
귀 밧퓌 히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호노라. : '귀 밧퓌 히묵은 서

리' 는 하얗게 센 머리의 비유이며, '녹여 볼가 흐노라' 라는 표현에서 늙음을 한탄하는 안타까움보다는 인생에 대한 여유와 관조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전문풀이]

봄 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어디론지 간 곳 없다. 잠시 동안 (그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여러 해 묵은 서리[백발(白髮)]를 (다시 검은 머리가 되게) 녹여 볼까 하노라.

[핵심 정리]

작자 - 우탁(禹倬 1263-1343) 자는 천장(天章), 역동(易東). 원종-충혜왕 때의 학자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성격 - 탄로가(嘆老歌)

제재 - 백발

표현 - 은유법. 도치법(판본에 따라 '마리 우회 불니고져' 가 '블리고자 마리 우회', '썩리과져 마리 우회' 로 된 경우)

주제 - 늙음을 탄식함

▶ 작품 해설

탄로가(嘆老歌) 두 수 중의 하나이다.

쌓인 눈을 녹게 하는 봄바람을 잠깐 빌려 와서 자신의 머리 위에 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밑의 서리, 즉 백발을 녹여 보려는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백발이 눈과 서리로 비유되고, 늙음을 극복하려는 서정적 자아의 의지가 봄바람으로 비유되어 표현의 묘를 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노래는, 흔히 고려 속요에서 볼 수 있는 감상적(感傷的), 애상적(哀傷的) 정서에 비하여 허무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엿보인다.

이 시조는 늙음을 한탄한 탄로의 시이나, 탄로의 한탄 속에서도 인생을 달관한 여유가 한결 돋보인다.

(4-30) 흐 손에 막닥 잡고

우탁(禹倬)

흐 손에 막닥 잡고 또 흐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백발) 막닥로 치려터니,  
白髮(백발)이 제 문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막닥 : 막대

가시 : 가시

치려터니 : 치려고 하였던니

문져 : 먼저

즈름길 : 지름길, 첩경(捷徑)

白髮(백발)이 제 문져 알고 즈름길노 오더라. :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찾아오는 늙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세월의 흐름은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무상감(無常感)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 풀이]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핵심 정리]

작자 - 우탁(禹倬 1263-1343) 자는 천장(天章), 역동(易東). 원종-충혜왕 때의 학자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성격 - 탄로가(嘆老歌)

표현 - 대구법, 대조법

내용 - 초장(막대와 가시를 잡음) 중장(백발을 막으려 함) 종장(백발을 막지 못함)

주제 - 늙음을 탄식함

▶ 작품 해설

'탄로가(嘆老歌)' 2수 가운데 한 수이다. '늙음' 이라는 추상적인 인생길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길로 전환시키고, 세월의 흐름을 가시와 막대기로 막으려는 발상이 재미있다.

인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늙어감' 과 '죽음' 일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불로초(不老草)를 찾아 심산유곡(深山幽谷)을 헤매이지 않았던가. 탄로가(歎老歌)에 속하는 이 작품은 이와 같은 '늙어감' 을, 나아가 인생무상을 달관한 경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시적 표현이 매우 참신하며 감각적이다.

세월(늙은 길)과 늙음(백발)을 구상화(具象化)한 공감각적(共感覺的) 이미지를 통해 늙음에의 안타까운 심정이 간결하고도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4-31)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이조년(李兆年)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나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하여 줌 못 드러 흐노라.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시어, 시구 풀이]

이화(梨花) : 배나무꽃. '애상, 결백, 청초, 냉담' 등의 이미지를 지님

은한(銀漢) : 은하수

삼경(三更) : 한밤중.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시(子時), 병야(丙夜)라고도 함

일지춘심(一枝春心) : 나뭇가지에 깃들여 있는 봄날의 마음

자규(子規) : 소쩍새, 접동새. '불여귀, 귀촉두, 두견' 등의 별칭이 있으며 '처절, 고독, 애원' 의 이미지를 지님

[전문 풀이]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은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가 알고서 저리 우는 것일까

다정다감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핵심 정리]

지은이 - 이조년(1269-1343) 고려 말 학자. 정치가. 자는 원로(元老). 호는 매운당(梅雲堂) 또는 백화헌(百花軒).

연대 - 고려 말

갈래 - 평시조

성격 - 다정가(多情歌)

표현 - 상징법, 의인법.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잘 어우러져  
봄밤의 애상적 정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내용 - 초장(봄밤의 배경) 중장(봄밤의 애뜻한 감정) 종장(봄밤의  
애상)

주제 - 봄밤의 애상적(哀傷的) 정서

▶ 작품 해설

봄날의 한밤중을 배경으로 하여 밝은 달 아래 눈물을 머금은 듯한  
배꽃, 어디선가 들리는 두견의 울음소리가 더욱 애상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여 주는 작품이다. 봄밤의 정서가 이화, 월백, 은한 등의 백색 이미지  
와 자규가 지니는 처절, 애원, 고독의 이미지에 연결되어 더욱 애상적인  
정함을 나타내 주면서 모든 시상이 '춘심'에 집약되고 있다. '다정  
가'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고려 시조 가운데 표현 기법이 정서면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한편, 지은이가 정치를 비판하다가 고향으로 밀려나서, 충혜왕(忠惠  
王)의 잘못을 걱정할 심정을 하소연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작품이다.

<참고> 이조년의 시조 한역(漢譯)

梨花月白三更天(이화월백삼경천)

啼血聲聲怨杜鵑(제혈성성원두견)

儘覺多情原是病(진각다정원시병)

不關人事不成眠(불관인사불성면)

- 신위(申緯)의 <경수당전고(警脩堂全藁)>

(4-32)수양산 바라보며

성삼문(成三問)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劑(이제)를 恨(한)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호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헤 닛드니.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수양산(首陽山) : 백이, 숙제가 은둔 생활을 한 중국의 산. 여기서  
는 수양 대군을 가리키기도 함

채미(採薇) : 고사리를 캐. 고사리를 뜯는 일

호는것가 : 하는 것인가. 해서야 되겠는가

푸새엿 것 : 산과 들에 절로 나는 풀 따위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劑(이제)를 恨(한)호노라. : 수양 대군  
을 향해, 바라보며 이제(夷齊)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외치는 표  
현이다. 수양산은 산 이름과 수양 대군[세조]을 뜻하는 중의법이다.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헤 닛드니. : 고사리는 녹을 받지 않  
겠단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나? 나 같으면 고사리마저  
도 캐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은이의 철저한 절의(節義)의 정신을 보여  
준다.

[전문 풀이]

수양산(백이,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여기서는 수양대군을 가리  
키기도 함)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절개가 굳은 선비라고 말하는) 백  
이과 숙제를 오히려 지조가 굳지 못하다고 나는 꾸짖으며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어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닛는가?

[핵심 정리]

지은이 - 성삼문(成三問, 1418-1456) 호는 매죽헌(梅竹軒). 세종 때  
학자. 충신. 사육신의 한 사람. 문집으로 <성근보집>과 시조 2수가 전한  
다.

갈래 - 평시조

성격 - 지사적, 풍자적, 절의가, 충의가

표현 - 풍유법, 중의법, 설의법

제재 -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

주제 - 굳은 절의와 지조

▶ 작품 해설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작자의 의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절  
의가(節義歌)'로 주(周)나라의 충신 백이(伯夷), 숙제(叔齊)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이에 항거한 지은  
이가 자신의 위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이런 부류의 절의가  
(絶義歌)로 알려진 작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삼문(成三問)의 다른 시조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峰(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서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홀 제 獨也靑靑(독야청청)호리라.

(전문 풀이)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서

흰 눈이 온 천지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

박팽년(朴彭年)의 시조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되라.

夜光明月(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 向(향)호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잇오라.

(전문 풀이)

가마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검구나.

야광주와 명월주가 밤이라고 해서 그 빛을 잃겠느냐.

임(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은 고칠 수가 없다.

이개(李垓)의 시조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호엇관디,

것호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노고.

우리도 더 燭(촉)불 갖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전문 풀이)

방 안에 켜 있는 촛불은 누구의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슬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모  
르는구나.

<참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

은나라 말 주왕(紂王)이 폭정을 일삼으므로, 제후 서백[西伯-주왕  
(周王)]의 아들 발[發-주무왕(周武王)]이 이를 치려 하자, 백이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인(仁)이라 하겠는가?” 하고, 만류했  
지만, 발이 끝내 주(紂)를 치는 것을 보고 “주(周)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으리라.”고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다가 굶주려 죽었  
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은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으레 이들 형제  
를 들어 말하게 되었다.

(4-33)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菊花야 너는 어이 三月 東風 다 보시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 썬인가 흐노라.  
 <병와가곡집>

[시구 구절 풀이]

삼월동풍: 삼월 봄바람

낙목한천: 낙엽 떨어지는 차가운 하늘

오상고절 : 서리에 굴하지 않고 고고히 절개를 지킴.

[전문풀이]

국화야 너는 어이하어 삼월 봄바람 다 보내고

낙엽 떨어지는 차가운 하늘에 네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서리밭 속에 굴하지 않고 고고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핵심정리]

종류 : 평시조

성격 : 절의가

제재 : 국화

주제 : 高節(고절), 선비의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

배경 : 작자가 말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소동파가 시구 '국잔유유오상지(菊殘猶有傲霜枝)'를 떠올리며 지었다고 한다. 이것은 '국화는 오히려 서리에 오만한 가치를 남겨 가진다.'는 뜻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국화의 지조를 나타낸다.

▶ 작품 해설

내노라 하고 못꽃들이 경염(競艷)을 하는 봄이 지나고, 찬 서리가 내릴 때 홀로 피어 그 향기를 흠부리는 국화는, 마치 역경 속에서 곳곳이 자신의 지조를 지켜 나가는 군자(君子)의 품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꽃이었다. 이 시조에서는 그런 국화를 의인화해서 그 절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지조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립(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이런 지조는 선비의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지조와 정조는 다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요,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利慾)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사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의 세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인욕(因辱)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선불리 지조를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어떤 선비도 변절하여 권력에 영합해서 들어갔다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온 예를 역사상에서 보지 못했다. 이렇듯 변절의 생리는 최후가 비참하고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조지훈, 지조론(志操論)>

절조보다는 사리(私利)에 눈이 어두워 선비 정신을 활갠에 팔아버린 못난 위정자들을 볼 적마다 작자의 심정은 어땠이었을까? 그는 이 작품에서 재차 지조 있는 선비로서 소신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조에서의 '오상 고절(傲霜孤節)'은 바로 작자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34) 솔이 솔이라 하니

송이(松伊)

솔이 솔이라 하니 무슨 솔만 너기는다  
 천심절벽(千尋絶壁)의 낙락장송(落落長松) 내 괴로다  
 길 아리 초동(樵童)의 접낫시야 거러 볼 줄이 이시랴.  
 <청구영언>

[시어, 시구 풀이]

접낫시야 : 작은 낫

[전문 풀이]

솔이, 솔이라 하니 무슨 솔이로 생각하고 있느냐

천 길이나 되는 절벽에 우뚝 솟은 큰 소나무, 그것이 바로 나이도다.

길 아래 지나가는 초동의 작은 낫으로 걸어볼 수 나 있는 줄 아느냐?

[핵심 정리]

종류 : 평시조

성격 : 절개가, 애련(愛戀)의 노래

제재 : 고고한 절개

주제 : 고고(孤高)한 자부심

▶ 작품 해설

비록 못 사내들의 노리개 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천한 하류층의 몸이지만, 하층은 사내들에게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자긍심을 노래한 작품으로 여겨짐. 즉, 아무 생각없이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작자가 가진 정신적인 지조는 높은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고고한 소나무와 같다는 의미로, 선비들이 하층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작자의 이름이 소나무의 한자음인 '송(松)'으로, 이 시조에서 초장의 '솔이 솔이'와 중장의 '낙락장송'의 표현을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소나무'이기에 더더욱 지조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당당하게 나타나 있으며, 표현 또한 문학성이 돋보인다.

초·중·종장이 '할책(詰責)→ 자부(自負)→ 고절(高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4-35) 지아비 밭 갈나 간 덕

주세붕

지아비 밭 갈나 간 덕 밭고리 이고 가  
 반상(飯床)을 들오덕 눈썹의 마초이다.  
 진실(眞實)노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득락실가.

[시어, 시구 풀이]

밭고리 : 밭광주리. 밭고리.

[전문 풀이]

남편이 밭 갈러 간 곳에 밭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어올리되 눈썹에 맞추어 올립니다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님(에게도)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핵심 정리]

종류 : 연시조

성격 : 교훈적

제재 : 지아비, 밥고리

주제 :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부부유별)

배경 : 작자가 지은 연시조 <오윤가> 중에서 네 번째 작품으로 '부부 유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조이다.

▶ 작품 해설

초중장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중장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도리를 나타낸 부분이다. 특히 '눈섭의 마초이다'는 예의를 표하는 아내의 태도로서 매우 인상적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존경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부부 사이의 예절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으로, '오윤가'의 네 번째 수이다.

(4-36) 너희 도타하고

변계량

내해 도타하고 님 슬흔 일 하지 말며  
 님이 혼다 하고 義(의) 아니면 좃지 말니.  
 우리는 天性(천성)을 직히여 삼긴대로 하리라.

[전문 풀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며/님이 한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일을 따라 하지 말아라./우리는 올바른 천성을 타고난 대로 지키며 살아가리라.

[핵심 정리]

종류 : 평시조

성격 : 유교적, 교훈적

제재 : 천성

주제 : 의로운 천성(天性)을 지켜 나갈

▶ 작품 해설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며 의(義)와 지조를 지키고, 타고난 천성을 올바르게 품어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성선설(性善說)에 바탕을 둔 교훈가이다.

이 작품은 사람의 도리를 통하여, 유교적인 인생관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하던 공자(孔子)의 교훈이 중장의 '의(義)'와 중장의 '천성(天性)'과 함께 유교의 깊은 교의(敎義)를 형성하고 있다.

<차례>

○ 戀情歌 ○ .....1

(1-1) 귀쪼리 저 귀쪼리 .....1

(1-2)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1

(1-3) 님이 오마 하거늘 .....2

(1-4)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2

(1-5) 막음이 어린 후이니 .....3

(1-6) 바람도 쉬여 넘는 고기 .....3

(1-7)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4

(1-8) 어저 내 일이야 .....4

(1-9) 어이 못 오던가 .....4

(1-10) 뒤틀버들 굴히 것거 .....5

(1-11)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5

(1-12) 靑草(청초) 우거진 골에 .....6

(1-13) 공산에 우난 접동 .....6

○ 戀君과 憂國 ○ .....6

(2-1) 녹초 청강산에 .....6

(2-2)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7

(2-3) 상동에 뵈듯 님고 .....7

(2-4) 正合邦(정합방)인지 흐음 .....7

(2-5) 간 밤의 우던 여를 .....8

(2-6)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8

(2-7) 눈 마즈 휘여진 덕를 .....9

(2-8) 님이 헤오시매 .....9

(2-9) 白雪(백설)이 저지진 골에 .....9

(2-10) 삭풍은 나모 굿턱 불고 .....10

(2-11) 선인교 나린 물이 .....10

(2-12) 장백산에 기를 쫓고 .....11

(2-13) 장안을 도라보니 .....11

(2-14) 십년 古은 칼이 .....11

(2-15) 오백년 도읍지를 .....12

(2-16) 한산섬 들 불근 밤의 .....12

(2-17) 鐵嶺(철령) 노른 奉(봉)을 .....13

(2-18) 방 안에 헛는 촉불 .....13

(2-19) 간 밤의 부던 바람에 .....14

(2-20) 金生麗水(금생여수) | 라 흐들 .....14

(2-21) 녹이상제 슬지게 먹여 .....14

(2-22) 주려 주그려 하고 .....15

(2-23) 풍설 석거친 날에 .....15

(2-24) 흥망이 유수하니 .....16

○ 江湖閑情 ○ .....16

(3-1) 대초 불 불근 골에 .....16

(3-2) 말 업슨 청산이요 .....17

(3-3) 락암이 뒹다 울고 .....17

(3-4) 십년을 경영하야 .....17

(3-5) 田園(전원)에 나른 興(흥)을 .....18

(3-6) 두류산 양단수를 .....18

(3-7) 재 너머 成勸農(성권농) 집의 .....19

(3-8) 江山(강산) 죠흔 景(경)을 .....19

(3-9)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20

(3-10)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20

(3-11) 잔 들고 혼자 안자[만흥(漫興)] .....20

(3-12) 샛갯세 되롱이 입고 .....21

(3-13) 바람이 눈을 모라 .....22

(3-14) 청산도 절로절로 .....23

(3-15) 거문고 타자 하니 .....23

(3-16)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24

(3-17)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한디 .....24

(3-18) 추강에 밤이 드니 .....24

○ 다양한 삶 ○ .....25

(4-1)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25

(4-2) 가마귀 빠호는 골에 .....25

(4-3) 일신(一身)이 사자 하니 .....26

(4-4) 갯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26

(4-5) 功名(공명)을 즐겨 마라 .....27

(4-6) 노래 삼긴 사름 .....27

(4-7) 눈 발 갈아 기음 매고 .....27

(4-8) 늙프락 나즈락 하며 .....28

(4-9)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28

(4-10) 두터비 꼭리를 물고 .....29

(4-11) 盤中(반중) 朱紅(조홍)감이 .....29

(4-12) 붉가버스 兒孩(아해) | 들리 .....30

(4-13) 산은 빛 산이로되 .....30

(4-14)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31

(4-15) 이고 진 더 늘그니 .....31

(4-16) 이런들 엇더하며 .....31

(4-17) 이시렴 브디 갈싸 .....32

(4-18) 흥 손에 막디 잡고 .....32

(4-19) 한숨아 세한숨아 .....33

(4-20)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33

(4-21) 흥 눈 멀고 흥 다리 져는 .....34

(4-22) 개야미 불개야미 .....34

(4-23) 고을사 저 꽃이여 .....35

(4-24) 짝은 든는 대로 듯고 .....35

(4-25) 뉘러서 가마귀를 .....35

(4-26) 보리밥 풋노물을 [漫興(만흥)] .....36

(4-27) 梧桐(오동)에 덧는 빗발 .....36

(4-28) 청산리 벽계수야 .....37

(4-29) 春山(춘산)에 눈 녹인 바름 .....37

(4-30) 흥 손에 막디 잡고 .....38

(4-31)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38

(4-32) 수양산 바라보며 .....39

(4-33) 국화야 너는 어이 .....39

(4-34) 술이 술이라 하니 .....40

(4-35) 지아비 발 갈나 간 디 .....40

(4-36) 너희 뉘타하고 .....41